

'집단지성·협업문화로 제작하는 불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전문지'

신대승 e-magazine

2016년 11월호 Vol.05

webzine.newbuddha.org

c o n t e n t s

신대승의 목수건!

최순실의 잘못된 자식 사랑 - 한주영 02

편집진 편지

'간디 특검'을 바란다 - 윤남진 05

카드뉴스

1/10로 토막난 한국불교의 그 무엇? - 윤남진 08

뉴스클리핑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불편한 진실 - 박재현 19

기획 강호대담-선우.선지식을 찾아서: 영화감독 진모영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가? - 윤남진 22

교단/종교

박대통령과 최순실, 종교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 윤승용 28

미디어/공존장

불교미디어, 협업과 공유의 방법을 찾자 - 윤남진 31

세계/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리즘의 아시아 확산 우려하는 인도네시아 - 민정희 34

아시아의 전투적불교시리즈 ② 버마/미얀마 편

반제식민저항에서 이슬람포비아 폭동까지 - 이유경 38

기후/생명/에너지 우리가 잘 모르는 기후변화 이야기 ②

30억 인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바다의 기후변화 - 민정희 54

경제/트렌드 경제는 살림 ①

경제를 이끄는 말머리, '이어짐' - 변택주 58

한반도/사회 복讎 땅과 스님들 ②

리규룡 부위원장과 금강산 - 이지범 61

인문/기행/People 서울, 길을 걷다

인왕산과 옥류동천 길 - 최연 66

생활/수행

한국 대승불교의 위기를 말한다 - 이제열 77



신대승네트워크
New Bodhisattva
Network

최순실의 잘못된 자식 사랑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더불어 그들에게 부역하며 사리사욕을 채운 모든 이들이 정치적 책임을 짐으로써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이 글은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 부모의 입장에서 최순실이 딸인 정유라에 대해 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모두가 자식을 위해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승마협회를 뒤집어엎고, 권력을 빌어 한 대학의 입학제도를 바꾸고 면접점수를 평균보다 30점이나 높여 입학시켰다. 그 결과 그 대학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그 이후에도 학점을 안주는 지도교수를 찾아가 횡포를 부렸고 지도교수 마저 바뀌치웠다. 최근엔 딸이 독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게 해주고 해외 대출을 위해 독일승마협회의 재직증명서까지 발급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대학생들이 그리고 중고생까지도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권력층의 자식 위하기가 헬조선의 실체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히 여겼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기회의 평등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헬조선을 만든 원인임을 알기에 젊은이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것이다.

우병우는 자식이 군대에 갔을 때 이른바 꽃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력층 자식들의 이중국적과 군 면제가 많은 것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임을 짐작했던 젊은이들이 정유라를 통해 말로만 듣던 금수저의 실체를 여실히 본 것이다. 정유라씨가 그런 부모 만난 것도 능력이라 했다는 것을 보면 잘못된 사랑이 자식의 인생까지 그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며 노블리스오블리제 정신이 부족한 요즘 우리 사회의 부자들처럼 권력층의 잘못된 자식사랑의 단면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자식 사랑이 비단 권력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건 작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식을 성공시키려는 부모들의 욕심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치맛바람이라 불리는 부모들의 과도한 학교생활에 대한 개입도 그 중의 하나다. 얼마 전 지인에게 왕따 문제가 아이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입김에 의해 아이의 왕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노조원 취업 대물림규정으로 일컬어지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규약 같은 것도 잘못된 자식 사랑의 하나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식자랑을 팔불출이라 하여 대놓고 자식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 사랑은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의 일에 과하게 개입하게 되고 부모의 힘이 자식의 성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한 자식사랑이란 아이가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의 사회인으로 제몫을 하도록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아이가 살아갈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감히 부처님께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빌지 못했다. 우리 아이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힘을 비는 것조차 부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고, 친구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예전엔 속은 상할망정 자기 자식을 야단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자기 자식의 주장만 믿고 감싸서 법정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심지어 부모가 학교에 찾

특혜의혹 최순실 딸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이대생들 (사진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아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조차 있고 보면 잘못된 자식 사랑이 자녀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곤 하였다.

<육방예경>에서 부처님은 부모는 자식을 타일러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가르쳐 주라 하였다. 또한 <중아함>제3권 14경 <라운경>에 보면 부처님은 아들인 라훌라가 잘못했을 때 대야를 발로 차서 물을 엇질러 잘못을 바로 잡은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이때가 12살 때의 일이다. 그 후 라훌라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밀행제일이 되었다.

최순실의 잘못된 자식 사랑을 보며 우리도 각자 부모노릇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고 한다. 1:29:300,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비슷한 사건이 29가지가 생겨나고 300가지가 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추진할 때 그것을 묵인하고 옹호하고 부역한 사람들이 아마도 29명에서 300명은 넘었을 성 싶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부정의하고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본다.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사회개혁의 출발점을 찾았으면 한다. 글을 마치며, 문득 최순실씨 딸의 승마대회 문제와 관련해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조사를 담당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의 ‘응징 인사’를 지시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1987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한 후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붓다의 제자로서 붓다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신대승 네트워크>의 창립에 함께 했다. 전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현재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간디 특검’을 바란다

윤남진 트렌드&리서치 소장

1 ‘아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차별은 없다. 강도 집단에 들어가 일하기로 자원한 사람은 짐꾼 노릇을 했거나 망을 봐주었거나, 그렇지 않고 그놈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간호를 해주었거나, 강도인 점에서는 강도들 자신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부상병만을 시중해준 사람도 전쟁 범죄자임을 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미묘하다. 견해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론을 아힘사를 믿고 있으며 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앞에 가능한 한 명백하게 펴놓았다.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나 관습에 따라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수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잘못임을 알았을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속죄해야 할 것이다’ ‘케다 주에 흉년이 들어서 소작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을 지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그 지방을 조사해 보지 않고는 조언을 할 마음도, 능력도, 용기도 나지 않았다’



광화문 촛불집회(사진출처: 오마이
블로그-오마이뉴스)

(암리차르 학살에 대한 조사위원회인-필자) ‘...헌터위원회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간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간디) 이 위원회 업무의 조직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잡는 일도 내게 맡겨졌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만 이 것 뿐이다... 보고서에는 그 진술의 확실성에 대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의심되는 점은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로지 진실을, 진실만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내가 아는 한 거기에 기록한 것 중 사실이 아니라고 반증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간디자서전-나의 진리실험이야기>(함석헌 옮김, 한길사)에 실린 글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고한 자서전임을 믿는 한에서, 간디의 진실성을 믿는 한에서, 역자인 함석헌 선생이 의도적 오역을 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글은 있는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 백만여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시국이 엄중하다.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갈림길에 선 것처럼 보인다. 각종의 해법이 난무한다. 고상한 언변으로 표현된 주장들, 날것처럼 펄펄 뛰는 열렬한 주장들, 거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접은 듯한 음울한 주장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섞여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형국을 푸는 불교적 해법을 ‘화쟁’이라고 했던 것 같다. 여러 화쟁론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형국에서 ‘화쟁적 해법’은 무엇인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대개의 민초들이 생각하듯이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세상의 땅위에서 살짝 살짝 뜬구름처럼 고상하게 용쓰는 사람들의 말이란 것은 따뜻한 시국에서나 통하는 고상한 훈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는 모범적 인물 중에 교종(敎宗)과 같은 존재가 간디다. 물론 불가촉천민 출신인 암베드카르와 간디의 상반된 불가촉천민 해방의 해법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 글머리에서 길게 <간디자서전>의 몇 문장을 인용한 것은 것처럼 화쟁론자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그 간디의 구체적 실천행동을 바로 알았으면 해서다. 간디의 아힘사 운동이 간단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는 식(<화쟁>, 조계종화쟁위원회, 2015)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화쟁>이라는 책에서, 이 알쏭달쏭한 대목의 한 문단을 보자. ‘화쟁은 진실에 주목하기 때문에 다툼을 맹목적으로 화해시키거나 이해득실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 있다’는 다툼 너머의 보편적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다툼의 근원적 뿌리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는 도대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는 옛 말의 맥락이, 어떻게 그 고상한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 있다’는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아둔한 탓이라 머리를 쥐어뜯고 볼 일이겠다. 현 시국에 대입해 해석하자면, ‘촛불(싸움)은 말리고, 정치적 타협(원탁회의? 대중공사?)은 불이라’는 것일까?

3 간디의 직업은 변호사였다. 청년 간디는 출발이 사상가이거나 운동가라기보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어떤 세속적 직업인이었다. 그의 자서전을 읽다보면 그의 주장의 바탕에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엄격한 추구하고 확인이라는 직업적, 도덕적 기준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앞서 길게 인용한 <간디자서전>의 문장들에서 그런 덕성이 묻어난다. 물론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불교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추구한다. 사실 혹은 진실을 추구한다. ‘다툼 너머의 보편적 진실’은 그 무슨 ‘원리로서의 연기론’(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 있다)으로 간단히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연기실체론’이다. ‘공(空)에 취착하는 공론’, 전도몽상이다.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으니 공동체를 위해 보살의 삶을 살자는 입장(중생무변서원도)이 아니라,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세상이니 어울렁 더울렁 다툼은 피하고 대강 흥정 좀 잘해가며 살자’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한다. 매서운 수리의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간디의 말처럼 그 무엇 하나의 사태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쓰더라도, ‘보고서에는 그 진술의 확실성에 대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의심되는 점은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으며’, ‘오로지 진실을, 진실만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내가 아는 한 거기에 기록한 것 중 사실이 아니라고 반증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야 하고,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는 논리도 그런 치열한 사실과 진실의 추구에 기초하여 나와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은거하는 도인은 적어도 세상을 망치지지는 않는다. 대체로 사기꾼이나 무임승차자가 공동체를 파괴한다. 물론 인류 진화의 역사를 해석하는 지금까지의 학문적 진술에 한해서 그렇다. 간디가 자신하였듯이 사실과 진실에서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틀림없는 보고서를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특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화쟁의 출발이 아닐까? ✱



윤남진(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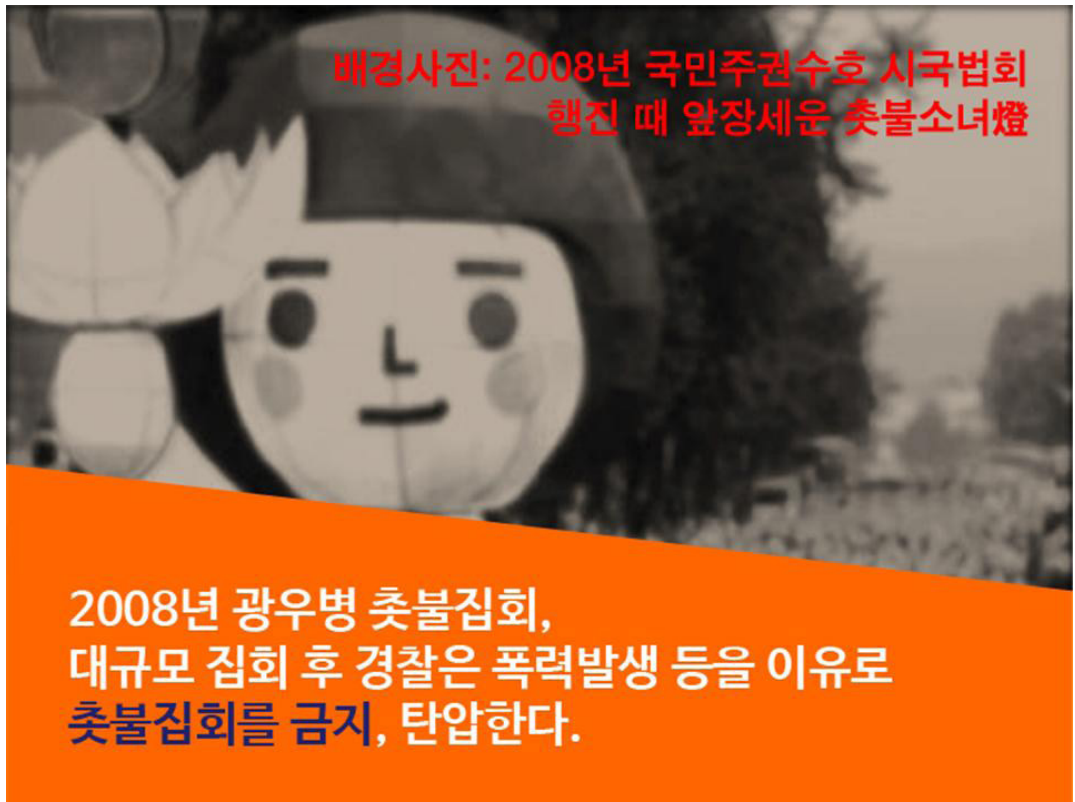
1993년 첫 사회생활을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한 이래 이쪽 바닥을 벗어나 본적 없이 20여 년을 보냈다. 지리산 자락으로 귀촌하여 공부하며 책 쓰며 은거하고자 준비하던 중,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신대승 네트워크>의 창립에 함께 했다. 현 NGO리서치 소장, 불교사회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조계종 신도교재편찬위원 등

1/10로 토막난 한국불교의 그 무엇?

- 각 종교별 시국대응의 양상을 살펴본다

윤남진 트렌드&리서치 소장





배경사진: 2008년 국민주권수호 시국법회
행진 때 앞장세운 촛불소녀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대규모 집회 후 경찰은 폭력발생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금지, 탄압한다.



촛불이 위태로울 때

촛불이 꺼질 위기 상황,
종교계는 평화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시국법회, 시국미사, 시국기도회로 대응, 촛불을
보호하기로 결정한다.



배경사진: 2008년
7.4시국법회(서울광장) 모습

불교계는

‘국민주권수호 권력참회발원 시국법회를 개최,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다.

시국법회추진위 참가조직: 조계사 등 6개 주요사찰, 불교한
경연대 등 단체, 주요사찰 신도회 회장단



배경사진: 2008년
8.27범불교도대회 모습

불교계는

‘민족문화 수호’를 요구하며 범불교도대회를 개최,
범불교종단 차원에서 20여만명이 참가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총무원장은 원로의원을 지낸 지관스님



출처: 불교포커스

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그후에도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스님 5천여명 동참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시국선언' 스님 1,012명 동참



2008년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8년이 흐른 지금,
불교계의 시국 대응은 어떤지
각 종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배경사진: 백남기 지키기
천주교 수녀들과 이병호 주교

출처:지금여기

10/25일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달려온 사제, 수도자, 시민들.
천주교구 이병호 주교가 함께하고 있다.



출처:지금여기

서울, 수원, 의정부 교구와 남녀수도회가 함께 봉헌한
서울 광화문 광장 시국미사 뒤, 참가자 1000여 명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까지 행진했다.





박근혜퇴진기독교운동본부는
10월 11일 대한문 앞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고 행진했다.



“지금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이 병들어 죽는다”
교회협 교단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불교계 시민사회 연대체인 불교행동이 11월 1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박근혜퇴진 5대종단 운동본부〉가 11월 12일 대학로에서 사전집회를 갖고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기독교 신학대 학생들이 약1천 여명이 합류했다고 한다.



배경사진: 2008년 국민주권수호 시국법회
행진 때 앞장세운 촛불소녀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2~3천명의 시국법회 동참불자들은 2~3백명 수준으로
줄었다. 종단도, 교구도, 사찰도, 신도회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데 ...



이 와중에 ‘한전부지 환수’를
주장해온 조계종이 11월 중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 종무원 223명은 시국성명 발표)



자승 총무원장은 대통령을 만나,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촛불민심에 맞추어 거꾸로 돌이켜 해석해 보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퇴진 서울시민 대행진

행진출발시간 2016년11월19일(토) 오후 2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 모일시다!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 서울 곳곳을 누빔니다!

행진출발장소
 동쪽행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출구
 서쪽행진 - 홍대입구역 8,9번 출구 사이
 남쪽행진 - 삼각지역 12번 출구
 북쪽행진 - 이태원-이공원
 *도심을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행진합니다.

광화문 광장

박근혜정권퇴진
서울행동

※ 오시기 쉬운 출발 장소로 모이주세요
참여문의 : 010.7347.0528

누내러악라 박근혜!

박근혜퇴진을 위한
5대종단 연합기도회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9일(토) 오후4시 30분 광화문 북측 광장
주최 | 박근혜퇴진 5대종단 운동본부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불편한 진실

박재현 협업미래센터 소장

국민들과 언론의 모든 관심이 온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정부는 ‘국민 반대’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회가 열린 이후,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의를 연 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에 가서명했으며, 다음날인 15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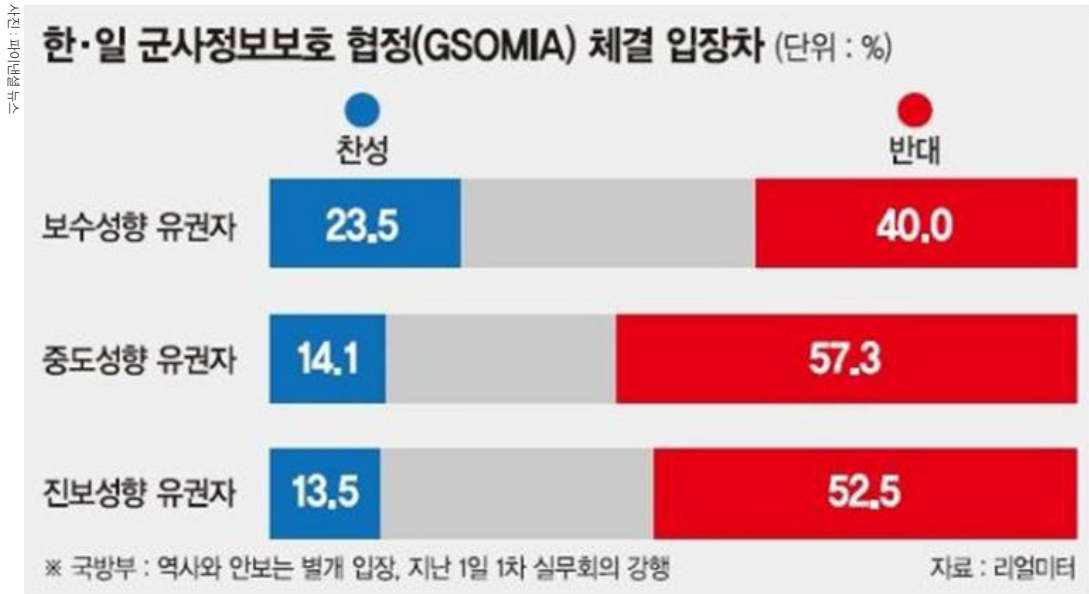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절차를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며 남은 국내 절차인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의 재가’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 ‘국민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집착하는 국방부 그 불편한 진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리에 협정 체결을 시도했다. 국민들은 이를 두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밀실 협상’이 밝혀져 여론이 심하게 악화됐고, 일본 측에 서명으로 연기를 요청한 뒤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뒤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지지율이 5%로 떨어져 권력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박 대통령이 한·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강행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켜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도 보도되었다.(한겨레, “박 대통령 지시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





국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 ‘찬성한다’는 의견이 15.8%로 반대의견이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훨씬 높게 나왔다. 즉,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는 반대의견이 40.0%로 찬성의견 23.5%보다 높았고, 중도성향 유권자들도 57.3%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 14.1%보다 높았다. 진보계층 역시 반대의견이 52.5%로 찬성의견 13.5%보다 높았다.(파이낸셜 뉴스, 국민 절반 “한·일군사정보 협정 반대”...軍은 “역사·안보 별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첫째,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일 삼각MD 완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셋째, 이 협정의 체결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치로서, 헌법 전문 및 헌법 제5조 평화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어려워도 알고 가자! 한·일군사정보협정 5가지 문제)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체결은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

시아 맹주를 차지하려는 일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협정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까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포함한 모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추진 여부를 넘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반드시,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것이다. ✽



박재현(편집위원)

1994년 종단개혁에 참여, 개혁회의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종단의 종헌·종법 입안 활동. 그 후 총무원에서 10여 년간 종무원으로 생활하다가, 현장에 대한 갈증으로 월정사(교구본사)로 장을 옮겨 10여 년간 사찰과 지역의 불교현실체현. 20여 년간의 종단생활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한국불교의 길을 찾고 있다. 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 향사포럼 운영위원 등

영화감독 진모영 ①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가?

윤남진 트렌드&리서치 소장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해진 진모영 감독을 만났다.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2시간 30분 정도 긴 시간을 내주었다. 진모영 감독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으로 교계에 인연이 깊고, <신대승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A4 약 20쪽짜리 인터뷰를 4회 분으로 나누어 싣는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었으니,(墮河而死)

장차 임을 어이할꼬.(將奈公何)

이름 모를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지었다고 하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설화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이 노래를 부르고는 뒤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고 전하니,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후인들은 평한다. 백수광부와 그 아내의 설화는 비극이라 할 수 있겠다. 공감한다. 그렇다면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앞으로는 줄여서 ‘님아~’로 함)도 비극일까? 늙은 부부의 사랑이야기에서 짝(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그의 무덤에서 할머니가 한바탕 사설과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막이 내리는 이 영화는 비극일까?

카메라로는 잡았으되 영화에서는 담지 않았을 그 어떤 장면을 모두 관찰한 감독은 비극적 감정 같은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찰자로만 임했을까? 그렇게 제작된 객관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부터 독립된 영화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시나 소설은 좀 읽는 편이어서 영화관엔 몇 년에 한 번 정도나 가는 수준이고, 기껏해야 아이들이 종종 구매해서 보는 TV영화에 끼어드는 정도인 필자 수준에서는, 대단한 질문 하나를 겨우 찾았다는 욕감을 가지고 서교동 자택을 찾았다.

마침 대안학교에 다니는 딸아이 민서(중3)가 관심을 보이며 촬영, 녹음을 위한 휴대폰을 챙겨 조수로 따라나서 주었다.

홍성 노부부와의 인연, 20년 다큐 감독의 직관

영화관에서는 못보고 인터뷰 준비하려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저 혼자 보고, 아이들과 보고, 팔순의 어머니와 또 보고 세 번을 보았네요. 가장 가벼운 궁금증, 어떤 인연으로 주인공 부부를 만나셨어요?

거기(홍성)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원래 그 양반들이 그 동네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이미 유명한 분이었어요. 인간극장에서 잉꼬부부로 나온 거죠. 계통으로 보면 인간극장 전에, 2010년 1월 SBS 스페셜 특집다큐멘터리 4부작, 그때 짝이 처음 등장해요. 거기 4부작 중에 한 편이 실험성으로 짝맷기에 대한 것을 소재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 동네에 시집온 세 여인의 운명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중 한 집이 이 부부의 집이에요.

SBS에서 촬영하기 전에 어느 날 횡성 지역신문에 화보가 하나 실려요. 그 부부에 대한 인터넷 신문 기사인데, 그걸 보고 SBS에서 픽업, SBS 촬영한 것을 보고 KBS가 다시 섭외를 해서, 소재가 좋으니 스타일을 달리해서 인간극장에서는 5부작 미니드라마적 다큐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엔 텔레비전에 없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보니까 특이한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진감독은 털털한 듯하지만 매우 집요하고,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매운 기운이 느껴졌다. <정리자 주>



인간극장이었는데 30분짜리 5편을 찍 본 거죠. 굉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놔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전부터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한 지 20년 되었으니까 텔레비전이 어떻게 소재를 다루고, 소재를 다룬 후에 방치하는가, 속성을 잘 아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꺼냈으니까 신경 안 쓰거든요.

이 대목에 이르자 진모영 감독은 다큐멘터리 제작의 세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섞어가면서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필자에게도 따라온 딸아이에게는 처음 듣는 창작세계(?)의 이면세계 이야기였고, 재미있었다기보다도 유익했다.

진감독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 부부와의 촬영인연이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인간극장>이 출발이기 보다는 그의 20년 다큐 내공과 눈매가 진정한 인연이 되었고 이 작품의 성공배경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방송사라는 거대자본, 갑의 횡포가 엄존함도….

국제공동제작으로 출발한 것이 성공의 단초

그중에 제일 다른 것은 우리처럼 다큐로 텔레비전과 극장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는 사람들은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사고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큐라는 콘텐츠를 텔레비전이라는 스테이션(station)에 한정짓는데, 전세계적으로는 다큐를 만들면 장편다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그냥 소비하는 거 말고 극장버전과 TV버전을 서로 달리해서 90분, 52분 버전 등으로 공동제작해서 펀드로 묶어서 갈 것인지,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려하죠. TV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대가로 외주제작을 3~4천 만 원 주고 방송국에 들고 재방송 들고 말거든요.

콘텐츠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굉장한 소재를 썩히긴 아깝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도 국내 TV에서는 틀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봤으니까, 똑같은 걸 왜 하겠나. 그런데 이걸 전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소재이기 때문에 국제 공동제작으로 가고, 극장과 TV를 다 하고 전세계 사람들을 다 같이 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가야겠다고 기획을 한거죠.

처음부터 외부에, 국제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을 엮고 공동제작자를 엮고, 그렇게 시작한 거군요. 국제 공동제작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많지 않으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돼요. 이거 만들어서 내면 콘텐츠 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 수백시간 쏟아낸 원본까지도 방송국 소유로 귀속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TV에 내고 너무 좋았어, 원본을 다시 가공해서 극장판을 만들자는 생각을 못하죠. 창고에 썩어버리니까. 써보자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도토리가 다섯 개고 열 개고 필요하거든요. 그걸 국제공동제작의 틀 안

에 가면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회 형식을 갖는 세션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제랑 같이 하기도 하고 커미셔너들이 오죠. 펀드들도 오고. 내가 이런 소재로 이걸 만들건데 돈이 얼마나 든다. 도토리를 가지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맘에 들면 맘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자이크 조각을 맞춰서 큰 판을 만든 형태인데, 그러면 서로 권리를 나눠갖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도토리 하나로 받고 모든 걸 끝냈는데,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받기도 하고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전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극장 판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극장에 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죠. 원래는 한국에는 그런 구조가 없었어요. 방송사가 절대적인 슈퍼갑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콘텐츠 창작자들을 부리거나 억압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직업의 규정을 할 때 PD고, 비정규직 피디고, 프리랜서 피디가 아니라 독립피디, 방송사에 소속되거나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닌 계약관계로, 인디펜던트 독립피디로 꼭 살았으니까. 독립피디 동료들 중에 재밌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인데, 저랑 kbs 에 외주일 할 때도 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코너를 납품하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리포트를 하고 있었고 이충렬 피디는 그때 아마 한국민속에 대한 코너를 납품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같이 만나기도 하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제 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먼저 공개돼 영화제 상영 전석 매진은 물론, 영화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관객상까지 수상해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관객들이 영화의 작품성을 직접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작품에 대한 공감대까지 폭넓게 형성해 대중성까지 인정받은 것. 특히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조재현 집행위원장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영화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과 삶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영화”라며 작품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충렬 감독의 <워낭소리>, 독립 피디들에게 희망 보여줘

그러던 중에 이충렬 감독이 <워낭소리>를 터뜨린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여준 거죠. 콘텐츠 저작권문제, 직접 저작권을 쥐고, 극장에서 상영을 할 수 있고, 전세계 영화제를 다닐 수 있고, TV도 틀 수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 제작해 모든 걸 할 수 있는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각들이 바뀐 거예요.

아 우리가, 이충렬 피디가 만든 건 늘 우리가 만들던 거였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만들자, 어떻게 하면 되지?

독립피디들을 이미지화하면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외팔이, 절룩이, 사회에서 방출된 자들, 마이너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크거든요.

이충렬 감독이 보여준 그 세계 따라서 간 거죠. 그러면서 묘하게 잘 맞았던 게, 전세계 다큐영화제에 출전을 했던 많은 독립피디 작품이 대상을 차지하고 그래요. 그때부터 세미나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국제공동제작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펀드나 커미셔너들이 작품에 돈을 대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국제공동제작의 지평이 확 넓어져요. 그런 전체적인 베이스에서 '님아~'는 기획되고 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요.

그럼 그전부터 오랜 기간 방송국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제작하고 그러신 거죠?

97년에 방송사에 입문해서 2002년에 프로덕션을 선배랑 같이 차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쪽 프로덕션을 한 거죠. 방송사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따고 납품하고 납품가를 받고,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죠. 연출도 하고, 기획이나 팀장, 매니저 역할을 하는, 기획과 제작을 병행하는걸 2011년까지 했죠. 그걸 하는데.

방송사는 되게 재밌는게, 외주에 대한 것이. 보통 외주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니 네가 부품 잘 만든다며, 납품해하면, 납품하라고 하는 갑은 이걸 잘 모르는데, 방송프로그램 갑은 자기네가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꼭 납품을 받아야 하는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키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죠.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정신분열이 일어나려고까지 하죠.

프로덕션 포지션이 올라가면 총괄제작본부장을 맡는데, 밑에 팀장들이 있고 팀장 밑에 개별 피디들이 그 팀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작하죠. 방송국에 맡고 있는 피디가 처음에 담당피디한테 이야기하고, 팀장에게 이야기하고 본부장한테 넘어오죠. 피디나 팀장은 한명의 피디를 상대해야 하는데, 포지션이 넓어지면 수도 없는 방송사의 피디들이 부드러운 말부터 쌍욕까지 날이면 날마다 전화를 하죠.

그 정도 되면 군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100명이 넘죠. 그렇게 살면 제명에 못살죠.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어차피 연출자로, 만드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관리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하는 생각으로요.

7, 80명 먹여 살리려면 따 논 당상이 아닌 이상 엄청 피곤하고 마음 졸이는 일이지.
육을 먹어도 내 콘텐츠 가지고 육을 먹는 게 낫단 생각이 들어서 2011년에 관뒀어요.

그 노부부와의 인연은 그렇다 치고요. 찍은 기간은 어느 정도 었나요?
그걸 인터넷으로 본 후로 바로 횡성에 갔거든요. 늦여름이었으니까, 8월에 보고 9월부터 시작했어
요. 2012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다음해 1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15개월 찍었
죠. (한 해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화로써도 똑같은 시간을 겪죠. 가을에 시작해서 눈이 오고,
봄이 오고, 눈이 와서 끝나는.

15개월. 작품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긴 기간으로 느껴진다. 관찰자로서, 노부부가 아플 때
거나, 무슨 곤란을 당하거나, 혹은 힘들여 일을 해야 하거나 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다큐를 찍는 일 아닐까? 아예 모르는 처지이니 다큐 왕초보자로서 질문을
마구 들이대 보았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못 찍을 거 같았어요. 객관화해야지 되는 거 같은데, 뭔
가 좀 개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히 아프시거나 그랬을 때, 저도 이제 한 3,40명 되는
친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집안 장남이라,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특히 영화에서 노부
부 가족들 모였을 때, 객관적으로 끈질기게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저는 어렵겠다
고 생각했는데. ✽

- 2편 '다큐, 지켜보기 혹은 개입하기'로 이어집니다.



윤남진(편집위원)

1993년 첫 사회생활을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한 이래 이쪽 바닥을 벗어나 본
적 없이 20여 년을 보냈다. 지리산 자락으로 귀촌하여 공부하며 책 쓰며 은거하고
자 준비하던 중,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신대승 네트워크>의 창립에 함
께 했다. 현 NGO리서치 소장, 불교사회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조계종 신도교재편찬
위원 등

박대통령과 최순실, 종교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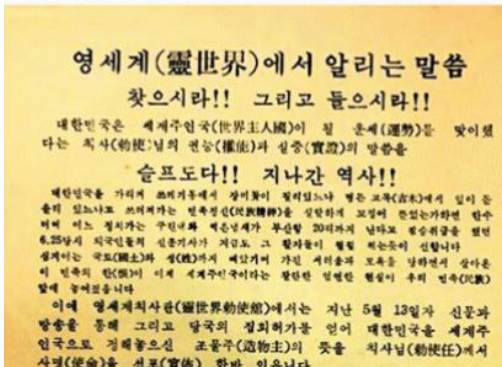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2016년 10월 26일 현재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인터넷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고, 최태민과 영생교가 그 다음이다. 이는 종교가 정치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뼈아픈 희극이다. 이 순위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취임 초부터 상식을 넘어서는 해프닝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종교로서나마 작금의 사태를 이해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또 대통령 자신이 비선라인에 의지하여 국가 통치 기강을 무너뜨린 것도 문제이지만 이른 바 '사이비 종교인'에게 국가 대사를 맡겼다는 것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것 같다.

최순실 부자의 아바타가 된 대통령

그렇게 세상과 소통이 불가능하고 유체이탈적 화법을 자주 사용한 원인이 종교와 세속을 가리지 못하고 종교에만 자신을 너무 의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최순실 부자의 강력한 마법적인 권능과 마음이 허약한 박 대통령의 집힘이 서로 맞닿은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린 시절 인간관계 없이 홀로 자란 박 대통령은 고 육영수 여사의 영매를 전달한 최순실 부자에게 마법적인 집힘을 당해 그들의 아바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1974년 최태민이 꿈에 나타난 육영수 여사의 메세지라며 박근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데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시절이었다. 1975년 부터 최태민은 영 세계 주인의 칙사(勅使)로서 역할을 마감하고 기독교 목사로서 대한구국선교단을 창설하여 전국적으로 기독교계 반공구국대회를 주도하였다. 그러다 박 대통령은 최태민이 새롭게 만든 '새마을 봉사단'에 총재를 지냈고, 그 단체의 대학생 회장이던 5번째 딸 최순실을 만나게 된다. 1994년 최태민이 죽자 최순실은 그의 뒤를 이어 종교적 후계자가 되었다. 이후 오늘날까지 박 대통령의 주변은 엄습한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박 대통령 취임 때 복을 비는 오방낭 행사, 연설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주의 기운, 혼의 비정상 등과 같은 종교적 용어가 그런 정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최태민과 반공구국대회(이미지 출처: 인생이뉴스에서 캡처)

이런 모두가 자신을 종교가로 자처한 최태민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본국으로 송고한 비밀문서에 의하면, ‘죽은 최 목사가 그녀의 인성 형성기에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런 결과로 최태민의 자녀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라고 되어 있다.

박 대통령에게 끼친 그의 종교적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당시 한국 기독교계를 휩쓴 최태민 목사(?)에게 지금은 목사 타이틀을 뺀 그의 불교와 천주교 신앙 경력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일개 ‘무당’으로 폄하시키려고도 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무슨 큰 피해자라도 된 듯이. 당시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사한 최태민과 놀아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금 와서 ‘최순실씨 때문에 개헌 논의가 발목을 잡혔다는 엉뚱한 성명을 내고 면피를 하려 한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소로운 일이다.

최태민 영세교와 해방 후 신흥종교는 차원 달라

최근 인터넷 논객들은 이 같은 최태민의 종교적 행각을 이해하기 위해 그 연원을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계보에서 찾기도 하고, 해방이후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파생된 조희성의 영생교나 이만희의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들과 역지로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들과의 연계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해방이후 한국의 신흥종교들은 신명과 같은 영의 세계를 강조하고, 유불선기(儒佛仙基) 4개교의 통합을 지향하며, 내세 천당이 아닌 현세 천국을 대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많다.

그렇지만 최태민의 영세교 혹은 영생교는 이름을 같을 수 있으나 활동 연대도 맞지 않고 종교 성격에서도 차이가 난다. 최태민의 영세교는 영 세계 주인의 칙사와 권능, 그리고 조화를 강조하는 무속적 성향이 강한 반면에 조희성의 영생교는 비록 「격암유록(格菴遺錄)」과 같은 참위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독교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비록 조희성이 사회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나름의 수도와 계시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교학체계를 만들고 대 교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최태민은 자신의 종교세계를 체계화시킨 족적이 분명치 않다. 때문에 종교와 세속이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산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게는 종교의 세계에서 일상의 세속으로 돌아오는 자기 반전의 단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태민은 공-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없이 종교를 세속적 이해만을 위해 열심히 이용해 먹은 것으로 보인다. 영적 후계자인 최순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기에 박 대통령은 열심히 아바타 노릇을 한 것이다.

한편, 종교는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종교는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면 인간의 삶을 가로막기도 하는데, 그 쓰임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를 행하는 인간이다. 물론 종교의 형식이 투박하다든가 세련되어 있다든가 하는 구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가 투박하다고 해서 종교적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간에서 정성을 다해 자식의 안녕을 빌었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누가 종교가 아닌 미신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반면 세련된 종교에서 일부 성직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고 신도들의 재산이나 갈취하고 성추행을 일삼는다면 누가 그것을 종교행위라고 하겠는가. 종교 자체를 가지고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따진다는 것은 종교학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종교는 칼과 같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사기꾼이 사용하면 사기꾼의 종교가 되고 사랑의 천사가 사용하면 사랑의 종교가 된다. 종교도 주인을 잘 못 만나면 고생하고 망신당한다. 최태민이 신분이 변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종교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또 최순실이 권세를 행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면, 최순실 부자의 종교는 내용과 성격에 관계없이 사이비 종교가 된다.

말하자면, 국정농단의 원인은 종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하여 권세를 휘두르고 몇 천억을 축재한 최순실 부자의 사기행각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집합에 놀아난 박 대통령의 사적인 종교와 공적인 세속에 대한 구별 능력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종교와 관련한 평가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 빚어 온 그들의 초법적인 행적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쓰는자에 따라 달라, 신종교 무조건 배척해선 안돼

세월호 참사 때 검찰과 언론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무능에 대한 본질적인 수사는 도외시하고, 기독교 구원피판 이단을 넘어 사이비종교로 때려잡는 수준에 머물렀다, 사건의 본질은 팽개치고 종교를 중심에 두고 흥미 위주의 시선잡기 수사가 전부였다. 이번에도 종교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 무속이나 신종교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식(式)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으면 한다.

지상 천국을 대망하는 신종교나 신명과 교통하는 무속도 인간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다. 그들도 문화적 필요에 의해 역사에 등장한 종교들이며, 그들이 있어야만 한 사회의 종교문화가 생동하는 문화로서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다. 이들이 기성종교의 패권주어나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 사설에 걸려 사회에서 무조건 배척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종교는 고난에 찬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문화의 기제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종교가 있다면 아무리 전통이 깊고 교리가 좋아도 그것 역시 현실에서는 인간의 삶을 가로 막는 종교 도그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교적 믿음과 이성적 사유의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 *

불교미디어, 협업과 공유의 방법을 찾자

- 상상력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공유해야

윤남진 트렌드&리서치 소장

조계종의 언론탄압이 380일을 넘기고 있다. 제안된 토론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고¹⁾ 탄압조치는 이제 제도적 차원으로까지 집요해지고 있으며²⁾,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부대중의 자발적 노력들은 뚜렷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중에 소식에 의하면, 종단 권력과 자본을 틀어 쥔 종권독점세력들에 의해 해종 언론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고 있는 두 언론사는 인프라(사무실, 서비스 인프라 등)를 축소하고 제 살 깎기를 하며(월급, 활동비 등) 장기전 태세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의와 개혁, 진보(향상)를 갈망하는 불교계 연대기구도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협동조합의 건설, 기금의 설립 등의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발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좀 더 전진하는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인은 무엇일까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조계종 언론탄압, 추동력을 찾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에는 우선, 우리의 네트워크가 양과 질에서 모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낼 역량이 아직 부족한 현실의 단면이 아닐까 한다. 네트워크의 양적인 측면은 지지 동참하는

대중의 수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불교계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왜 중요하며, 자유로운 공론의 장을 풍성하게 하는데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미디어의 역할이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개혁과 진보, 나아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미지)의 제고와 전범예의 기여 등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불자들이 수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만한 규모가 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동병상련하는 각각의 매체들 간의 숙의와 협력의 수준, 건전한 매체들을 지지하는 교계 제 단체들의 논의력이나 실질적인 결함력, 집중력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현실은 단체들도 다양한 교계 내외의 사안들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여러 사안들을 모두 힘있게 담보하고 돌파해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상상력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지 않나 하는 점이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당장의 곤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미래지향적 구상을 위축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당장의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한 행동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더 포부있는 구상과 연대가 함께 진행될

때 현실의 장애물을 혁파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즉, 샛된 것을 타파했을 때(파사破邪)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정의와 진보(현정顯正)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파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중에 대한 어떤 의무이자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최소한 3년~5년 정도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바쁘고 힘겨운 현실에 짐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투입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오히려 현실의 짐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듯이 말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 그에 기반이 되는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기사(정보)생산 외에 여러 독립언론의 공통업무 처리할 ‘상호부조서비스’ 회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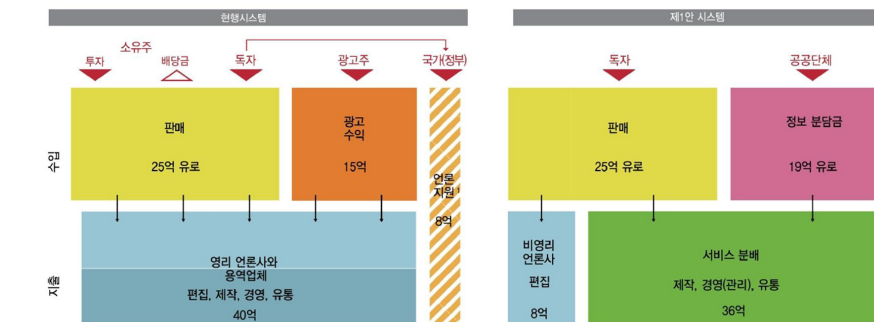
이제, 앞서 제기한 네트워크 양적,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확장해보자는 차원에서 어느 언론³⁾에서 제안한 ‘언론의 살길은 상호부조!’라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사한 방식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자 한다.

기사에서는 포괄적으로는 상호부조 경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보편적 이익을 표방하는 언론(대중 토론에 적합한 정보 언론-기사에서 발췌)

과 오락 언론을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기,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들에게 인프라구조를 제공하는 상호부조 서비스 창설, 정보 분담금에 의한 재정지원’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원칙인 ‘상호부조 서비스의 창설’이다. 다른 원칙들은 이 상호부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언론의 자격기준과 ‘상호부조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의 조달 방법에 대한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원칙에 관한 기사의 제안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생산 및 유통 인프라구조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공동서비스 회사’는, 인쇄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서 ‘인쇄설비·종이·신문물치를 발송하는 배송·일부의 가판대뿐만 아니라 사무실·종업원·저장과 전파 도구·연구와 개발 수단도 제공’하며, ‘모든 언론사에게 행정·회계·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구독·결제·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주는 공동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언론의 정보(기사)수집과 생산, 제작과 유통, 경영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기자의 역할과 편집국의 역할을 제외하고 - 이것은 각 언론의 정체성 부분이고 서로 다른 특성이므로 - 공통적인 프로세스에서의 일감을 ‘공동서비스 회사’를 두어 이곳에 각 언론의 요구에 맞게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각 언론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 셈이다. 이런 구조를 갖추면 기사의 주장대로 ‘신문사나 정보 사이트를 창설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고, ‘대안’ 언론이 주변부로부터 세상으로’ 더 확실히

공익언론 자금조달 시스템



1. 언론보조금은 총 16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은 공익언론에 할당된다. 이 범주에 중앙 및 지방종합지 510개 사가 해당된다. 출처: 2012년 프랑스 언론 통계

왼쪽 그래프는 현행 프랑스 언론시스템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출처: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4년 12월호에서 캡처)

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제안은 불교계 언론환경의 현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당장은 제법 큰 규모의 언론들(프랑스 언론)에 적합한 제안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불교매체의 조건에서 필요하면서도 가능한 ‘공동서비스’가 무엇이 될지를 정리해 보고, 또 3~5년 뒤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단기, 중장기 적으로 필요한 ‘공동서비스’는 무엇이 될지 단계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공동서비스’의 내용을 찾아가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장기적 발전 전망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예시하자면, 인터넷 매체가 협업 혹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인쇄매체를 발행하게 되는 것, 본격적인 오디오와 비디오서비스로 확장되는 것, 교계지를 넘어서 종합지를 혹은 교계 뉴스포털을 표방하는 매체를 설립하는 것 등 큰 그림에 대한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전망이 없이는 지금처럼 각자하는 살림살이가 더 편리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공동서비스’를 이용할 언론사의 자격조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발행인들이 비영리 기업의 지위를 채택하고(수익이 주주들에게 배분되지 않음), 정기간행물 각각의 유형에서(일간지, 주간지 등) 하나 이상의 타이틀을 소유하지 않고, 지면과 화면에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등이라고 하고 있다. 이 원칙을 고려하면서 우리 불교 언론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다면, 제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이 아니어야 하고, 수익이 주주들에게 배분되는 조직이 아니어야 하며(기자 및 종사자에 대한 급여와 재투자, 적어도 협동조합 수준), 여러 유형의 매체들을 그룹화해서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모든 광고를 금지’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숙의해야 할 것이다. ‘공동서비스회사’의 자금은 공공적으로 조달하거나 협동조합 형식으로도 가능

그렇다면 이 기사가 제안한 세 번째 원칙인 ‘어떻

게 ‘공동서비스(회사)에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기사는 ‘사회분담금’방식의 ‘정보분담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공동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공공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찌 보면 개별 매체나 특정 콘텐츠에 지원하는 기금을 창설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공동서비스’ 회사에 지원되는 기금을 창설하는 것이 더 신뢰성과 공공성이 높고, 재정형성에 대중적 참여를 호소하기에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서비스’ 회사를 대중참여방식의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언론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언론을 협동조합방식으로 한다면 특정언론을 하든지, 2개 이상의 언론이 통합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의견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독립적인 언론이 필요하다. 독립은 자립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의 자립은 협업과 공유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출발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상념에서, 그래서 독립언론에서 결가지로지만 한 1년 같이 활동하며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로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썼다. 신뢰와 열정으로 새로운 언론환경을 개척해가고자 하는 인물이 나오길 간절히 희망해본다. ‘한 점의 불꽃이 광야를 불사른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끝으로 다음의 문구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글을 맺는다.

‘우연히 얻은 승리에는 미래가 없고, 무력한 분노는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⁴⁾ *

1) 대한불교청년회, 신대승네트워크가 제안하고 회쟁위원회가 중간 역할을 하여 추진했던 이른바 ‘해종언론특위’와의 불교언론 관련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다. 2) 조계종은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으며 ‘불교기자협회’는 독소조항이 많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3) ‘언론의 살길은 상호부조’(<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12월호) 4) ‘미디어 장벽을 깬 어느 언론의 독립성’(<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년 10월호)

테러리즘의 아시아 확산 우려하는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세계평화포럼을 다녀와서

민정희 NEB 이사

인니 내 테러조직 발생에 대한 우려 높아

올해 11월 1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세계평화포럼이 열렸다. 세계평화포럼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기구 무하마디야(Muhammadiyah)와 '문명간 대화와 협력센터(Cent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Civilization)'가 200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온 포럼이다. 필자는 종교와 민족, 인종간의 다원주의를 다루는 프랑스의 NGO인 Pharos Observatory가 세계평화포럼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관하는 다원주의 전문가회의에 초청받아,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하게 되었다. 사실, 자카르타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 두 개의 행사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내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솔로에서 개최될 제3차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킹(Inter-religious climate and Ecology Network)컨퍼런스에 대한 계획을, 현지 무슬림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하는 일이었다.

세계평화포럼 참가자들
(사진: 필자제공)



이번 세계평화포럼의 주제는 “폭력적 극단주의에의 대응: 인간존엄성, 글로벌 정의와 공동책임”으로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접근방식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폭력 문화를 통해서 여성, 가족,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개회식 행사를 시작으로 연 사흘간 빽빽한 일정 속에서 평화포럼이 진행되었다. 파키스탄, 레바논, 나이지리아, 튀니지, 호주, 일본, 스웨덴 등 42개 국에서 온 종교지도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테러리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빈곤, 불평등과 부정의가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유엔에서 지난해 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해서 결정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달성,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교육하고 알리는 방안, 정부, 시민사회와 종교간의 협력,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이 대안으로 권고되었다.

세계평화포럼을 통해서 무하마디야가 테러리즘을 다룬 이유는 ISIL처럼 이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리즘이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만 해도 올해 1월 자카르타에 소재한 대통령궁과 유엔 사무실,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에서 ISIL을 자처한 테러범 5명의 총격으로 총 9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7월에는 남성 1명이 경찰서를 겨냥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한 달 앞 선 6월 IS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IS조직원을 향해 테러를 감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등 1만1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갖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 섬나라다. 오래전 한때 불교 문화가 꽃피우기도 했지만, 인구 2억 5천만 명 가운데 85% 이상이 무슬림 인구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 국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IS와 연계되거나 IS의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 내에서 자생적으로 테러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종교적 긴장 고조시킨 무슬림 강경파의 11월 4일 집회

예를 들어 세계평화포럼이 끝나는 11월 4일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서 무슬림 강경조직인 FPI가 주관하는 집회는 많은 이들로부터 두려움을 사기도 했다. 현지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FPI는 갱 조직과 다름없지만 무슬림의 정서를 악용하여 대

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저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4일 FPI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카르타의 주지사 아훅(Ahok)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친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코란의 구절을 잘못 인용하여 알라를 모독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FPI는 아훅 주지사가 사법처리를 받아 감옥에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중들을 선동했다. 그의 발언내용이 담긴 동영상의 유포되어 수많은 무슬림 사이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워낙 대중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었고,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갖는 조도요코 대통령마저도 아훅 주지사의 발언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훅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소수지만 그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유포되었다면 서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무슬림들은 아훅이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감옥에 가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기후변화 회의 준비

차 만난, 그나마 진보적인 무슬림 시민단체 활동가들 내에서도 아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지만, 몇몇 무슬림 활동가들은 아훅의 발언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다. 아훅 주지사의 발언이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FBI의 사법처리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였다. 아훅 주지사가 자신의 말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나 대중의 공분은 가시지 않았다. 그가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에는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까닭도 있었다. 그는 화교에다 실로 60여 년 만에 무슬림인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주지사가 된 인물이었다. 주지사로서 자카르타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메트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가난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제외하고, 대체로 그는 자카르타 주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을 혁신한 인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평화포럼의 주관단체 무하마디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까지 집회가 열리는 11월 4일, 시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였다. 인도네시아 정치를 전공한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는 “선생님은 화교로 보여서 더 위험하니까 나가시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위험하다고 말한 가운데 평화포럼에서 만난 한 인도네시아 개신교 목사는 유일하게 괜찮다며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였다. 현지 여성인권 단체 Women's Solidary for Human Rights에서 활동했고, 우리 네트워크에 속한 활동가 마헤이니(Marhaini Nasustion)의 안내를 받아 집회에 가보기로 했다. 그녀는 이번 집



무슬림시위 장면(사진: 필자제공)

회가 세계평화포럼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고, 외국인으로서 이런 집회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운이 정말 좋다고 했다. 집회장소 근처까지 연결된 도로는 모두 차량이 불허된 상황이라서 우리 둘은 무작정 걸었다. 걸어가는 동안 집회현장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검은색 복장을 하고, 깃발을 든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검은색 옷차림과 오토바이가 공포감을 자아냈다. 오전 11시에 기도회를 시작해서 1시부터 공식 집회가 시작되기로 했으나 11시 경 집회장소인 모나스(Monas) 근처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모여 있었다.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는데,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이 대체로 머리만 가리는 히잡을 하는 반면, 집회 현장에 모인 여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얀 천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렸다. 차량 진입이 불허된 집회 장소에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고 차에서 인도네시아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남성과 여성들이 내렸다. 언뜻 보아 파키스탄이나 중동 사람 비슷해 보였는데,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 관계자인 듯 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집회 참가자들의 필자를 향한 표정이 그다지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하기까지 했다. 더 이상 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돌아가자는 마히이니의 권유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한참 걸어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그날 오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카르타 뿐만 아니라 6개 지역에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는 것도. 다음날 아침, 마헤이니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집회 참가자들이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궁으로 향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차량 3대를 방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11월 4일의 집회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날 집회는 인도네시아에 거

주하는 다른 종교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일깨웠다.

이에 불교인들을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이 11월 5일 아침 6시부터 수디바르만 거리에서 평화행진을 계획하였다. 201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회의 때 만났던 인도네시아 대학생불교연합의 크리스샤 고타미(Chrissa Gotami)가 이 평화행진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날 아침 안내해주기로 했던 그녀가 새벽 늦게까지 리포트 작성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평화행진에는 참가할 수 없었지만, 평화행진을 주도한 인도네시아 불교도연합 관계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사무총장 등과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무슬림시위 장면2(사진: 필자제공)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이들은?

11월 6일 오후 유엔기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 아프리카의 또 다른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테러리즘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어느 한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글퍼졌다. 공항과 주요 관공서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호텔과 쇼핑센터를 방문하려면 검색을 받아야 한다. 최근 여러 차례 폭탄테러가 발생한 태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도 검색을 받아야 한다. 세계평화포럼에서 분석한 바 있듯이 빈곤, 부정의가 테러의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것만으로 테러의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 없다. 민간인 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경제 제재는 무기만 들지 않았지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방식의 테러였고, 이로 인해 현재 IS와 같은 테러조직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 테러 조직에 무기를 공급해온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산업국의 무기 생산과 수출이 계속되는 한 테러는 중단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

세계평화포럼이 열린 같은 기간 위키 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는 IS를 지원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클린턴 재단에 후원금을 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재직 시절 미 의회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이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사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IS에 무기를 제공해온 사실을 2014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사실 등이 담긴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판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IS를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 예멘 공격을 지원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무기판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에서 목숨을 잃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를 포탄과 총격에 대한 공포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이들이 누구인가? 테러리스트, 전쟁과 갈등을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나 안전은 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



민정희(INEB 이사)

대불련 지도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노동위 간사,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홍보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기후생태(ICE)네트워크> 사무국장, INEB 이사, 아시아불교생크탱크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2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교간대화' 참석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반제식민저항에서 이슬람포비아 폭동까지

- 세속주의에 밀려났던 불교민족주의, ‘이슬람 포비아’로 폭발하다

이유경 프리랜서 국제분쟁탐사 전문기자

30년대 사야산 ‘반란’, 전투적 불교의 마지막 반제무장봉기

아웅산의 ‘따킨’(Thakins)그룹, 세속적 민족주의로 30-40년대 독립운동 주도

21세기 전투적 불교, 박해받는 소수를 적으로

1930년대 영국식민치하 버마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첫째, 1930년부터 약 2년여 이어진 소농무장반란은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이 저항은 승려출신의 사야산이란 인물이 주도하여 ‘사야산 반란’(Hsaya San Rebellion)으로 불린다. 최하층민이나 다름없는 소농들이 무장봉기에 나선 건 반제저항의 정치성을 높였다. 동시에 전투적 불교에 기반한 마지막 반제무장봉기가 됐다. 두번째, 1920년대부터 청년학생층을 중심으로 기지개를 펴온 세속주의(Secularism, 정교분리원칙) 정치세력이 30년대 들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내 곧 이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30년대 초 ‘사야산 반란’까지만 해도 반식민투쟁의 지배적 이념은 ‘불교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반란이 진압된 후 종교주의는 세속주의에 서서히 압도당했다. 그 중심에는 버마독립군의 창시자이자 아웅산 수치의 부친인 아웅산 장군이 있다.



사야산 (출처: 위키피디아)

사야산 반란: 전투적 불교 반제운동의 마지막 전성기

우선, 사야산 반란부터 짚어보자. 사야산은 민족주의자이자 왕정주의자였다. 전 승려로서 지닌 ‘종교’적 신념과, ‘민족주의’ 그리고 ‘왕정주의’ 이 세 박자는 당시 독립운동의 주류이념과 조화를 이뤘다. 사야산이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것도 버마왕국의 부활, 불교의 재부흥 그리고 영국외세의 축출로 요약할 수 있다.

1920년대 저항을 주도한 승려 우 오타마, 우 위싸라 등이 비폭력



노선을 택했다면 사야산은 무장노선을 택했다. 1880년대 버마가 영국에 복속된 직후 변방에서 들끓었던 민중봉기가 좀 더 조직화된 형태로 부활한 셈이다. 봉기는 1930년 12월 22일 중부 폐구 지방 따라와디 타운에서 동을 띄워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곳곳에서 경찰소를 습격하고 정부시설물을 공격한 후 빠지는 게릴라식 전술이 이어졌다. 1931년 8월 2일 사야산이 체포되고 그해 11월 28일 사형당한 이후로도 저항은 계속됐다. 그러나 지도자를 잃은 운동은 길게 가지 못했다.

사야산 반란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이다. 지지자 대부분이 젊은 승려들과, 빈곤에 허덕이던 소농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피지배계층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운동임이 분명하다. 버마 역사가자들이 사야산 반란 이면에 식민치하 착취적 경제구조를 강조하는 것도 계층성에 방점을 찍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착취 구조는 식민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외세척결을 내건 민족주의 정서가 불교와 왕정이라는 전통적 요소와 결합하여 만든 복고주의가 이들이 추구한 가치였다. 이 가치는 오늘날 불교와 접목된 다양한 켈트 전통을 남겼다. 특히 사야산이 굳게 믿었던 문신과 부적의 힘 등 미신적 오브제들은 오늘날 까지도 일상은 물론, 정치

2011년 개방 노선 이후 불교민족주의는 이슬람포비아 캠페인으로 폭발해왔다. 이런 캠페인이 버만족, 불교도 중심으로 정책을 펴온 국가의 소수자 차별 정책과 적극 부합해 온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슬림, 특히 로힝야 무슬림들은 각각 종교 그리고 종교와 인종으로 국가의 제반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박해받아왔다. 21세기 버마 전투적 불교의 얼굴이다. (사진 : 이유허경)

환경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야산 반란은 시기적으로 보면 불교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던 독립운동이 세속적 민족주의 세력에게 넘어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미 20년대 중반부터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는 종교주의와 세속주의간에 이념적 갈등이 아른 거리고 있었다. 30년대 들어 랑군대 학생 아웅산 등 청년들의 진취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 두 세력간의 지렛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교민족주의의 쇠퇴, 세속적 민족주의의 부상

아웅산은 사야산 반란이 온전히 진압된 다음해인 1933년 랑군대 학생이 되었다. 맑시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그는 이미 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세속주의를 천명해온 인물이다. 랑군대 첫 학기 학생회가 주최한 영어토론장에서 그는 “승려들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는 1984년 처음 발표한 수필 <내 아버지> (My Father)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웅산이 부정확한 발음과 서툰 영어로 투박하게 설교한 메시지는 정말이지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토론을 주관한 그의 형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웅산은 팔리어(고대불교경전을) 단어와 문구가 혼합된 부적절한 영어를 거침없이 내뱉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야유와 모욕들을 무시한 채 하고자 했던 말을 끝까지 했다” (Aung San Suu Kyi 1991, Freedom from Fear - chapter1 ‘My Father’, Penguin Books P7 재인용)

청년 아웅산의 이런 배짱이 세속적 민족주의 진영의 동력이 됐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1935년 동료들과 함께 “우리 버마인들의 사회”(We Burman Society, 버마어로는 “Dobama Asiayone”)라는 정치 조직을 결성한다. 흔히 “타킨”(Thakins)으로 더 잘 알려진 운동체다. 그는 이 운동에 대해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벗어난 유일한 운동조직”이라고 자부심으로 평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세속주의가 불교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다. 그는 불교가 “종교이상의 관념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이라고 말했을 만큼 불교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았다.



아웅산 (출처 : aungsan.com)

당시 젊은 세속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승가사회를 주저없이 비판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테인 페 윈 (Thein Pe Myint) 이란 인물을 들 수 있다. 그는 1935년 출간된 소설 ‘텃 풍지’ (“Modern Monk 근대적 승려”라는 뜻)의 저자이며 좌파지식인으로 통했다. 그는 소설 텃 풍지를 통해 왕정체계의 위계질서를 비판하고 불교 성직자들의 성추문 등 비도덕적 행위를 고발했다. 소설은 충격이었다. 그는 살해협박을 받았고 소설 ‘텃 풍지’는 금지됐다. 결국 승려들에게 공개사과까지 해야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역사적 진화 물결을 탄 독립운동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불교민족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버마왕국의 부활과

세속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버마 공화국의 건설, 이 둘 사이의 갈등에서 후자의 정치력이 월등히 앞섰다. 그들은 1948년까지 독립될때까지 국면을 주도했다. 독립의 막후를 주도한 건 1945년 창설된 ‘반 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 (AFPFL, 이하 “반 파시스트동맹”)’이다. 반파시스트동맹은 버마공산당 (Communist Party of Burma, CPB) 등 좌파정당과 아웅산의 ‘버마독립군’이 함께 결성한 정치동맹체다. 반파시스트동맹은 그들의 마니페스토에서도 세속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가는 종교적 문제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종교는 대중정서를 착취하거나 이용돼서는 안된다”

그로부터 71년이 지난 올해 4월 25일, 랑군의 거리는 유사한 이름 ‘반 파시스트 반 인종주의’를 높여든 젊은이 25명을 맞았다. 이들은 “민족주의의 옛먹어라” “인종주의는 이제그만” 같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71년전 반파시스트 동맹의 마니페스토가 미래지향적 선포였다면, 지난 4월의 구호는 오늘을 고발하는 분노의 외침이었다. ‘종교적 중립을 저버린 국가’, ‘대중들을 착취하고 현혹시키는 종교극단주의’가 오늘 버마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반파시스트인민동맹 본부 (출처 : 위키피디아)

‘반 파시스트 동맹’(AFPFL) 마니페스토 71년만에 부활한 이유

2007년 10월 중순 버마 중북부 소도시 포코쿠(Pokoku) 사원의 후미진 방에서는 어두운 형광 빛 아래 저음 인터뷰가 진행 중이었다. 그 몇 주전 승려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 ‘샤프란 혁명’이 휩쓸고 간 뒤로 버마는 완벽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포코쿠는 서부 아라칸 주 시트웨 시위 (8월 24일) 다음으로 시위가 벌어진 곳이다. 시트웨와 달리 9월 5일 포코쿠 시위에선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날 승려들은 군의 차량을 공격했고 일부 관료들을 인질로 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만일 포코쿠에서의 폭력적 장면이 아니었다면 샤프란 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많은 평론가들이 포코쿠 시위를 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 필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에 좀체 알려지지 않았던 근 과거의 역사 한줄을 얻어낼 수 있었다. 포코쿠 승려들이 과격성을 보인다는 4년전 발생한 한 사건이 연계돼 있었다.

“2003년 승려들이 무슬림과 충돌했을때 군이 불교사원에 총격을 가했다. 우린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군 차량을 공격했다. 4년전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다”

필자 앞에 앉은 승려가 말했다. 그가 언급한 ‘승려와 무슬림이 충돌한 2003년 사건’이란 승려



포코쿠 사원 누비스 승려들이 식사 후 설거지 중이다. (사진 : 이유경 2007 촬영)

를 포함한 불교도들이 벌인 안티 무슬림 폭동을 말한다. 바로 최근 불교극단주의 승려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우 위라뚜가 관여했던 폭동이다. 인터뷰에 동석한 포코쿠 주민은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다.

“무슬림, 그러니까 그 인디언놈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도움을 받아서 ‘786’ 운동을 나라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786’은 남아시아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상징수로 ‘자비로우신 신의 이름으로’라는 이슬람 성서 꾸란의 첫 구절을 상징한다. 그러나 버마 불교도들 사이에서 이 숫자는 음모의 상징이다. ‘786’ 세 숫자를 더하면 21이 된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21세기에 버마를 점령할 거라는 음모론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불교 극단주의 세력이 안티 무슬림, 특히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증오 캠페인에 나서며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무슬림 점령음모’다.

로힝야 무슬림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또 방글라데시-아라칸 주 국경을 넘어오는 바람에 인구수로 버마를 점령한다는 주장도 매우 흔하다. 버마의 무슬림 인구는 대략 5%에서 최대 10%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버마와 방글라데시간 이주 현상은 이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수십만명의 로힝야 무슬림들이 아라칸 주를 떠나 방글라데시에 자리잡았다. 혹자에겐 웃고 넘어갈 음모론이지만 그들 사이에선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786’은 무슬림의 21세기 음모?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버마에서는 무슬림들의 ‘786음모’에 맞서 불교도들의 ‘969운동’이 본격화됐다. 969는 불교전통에서 나온 상징수로 9는 부다를, 6은 부다의 가르침 법륜을, 마지막 9는

부다의 제자 즉 승려를 가리킨다. 969의 이와같은 이념적 기원은 이미 99년 종교부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에 근무하던 우 초 르윈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969운동 사이트 역시 이 운동의 시작을 “99년 우 초르윈에 의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급격히 부상한 969운동은 우 위라뚜 승려를 선두로 하는 전투적 불교민족주의로 대열이 정비됐다.

포코쿠 승려들을 화나게했던 2003년 안티 무슬림 폭동, 위라뚜를 감옥으로 보냈던 그 폭동은 만달레이에서 약 44km 떨어진 축세(Kyakse)라는 곳에서 발생했다. 축세는 군사정권의 마지막 실세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탄쇄 장군의 고향이다. 당시 폭동으로 위라뚜를 포함한 6명의 승려는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위라뚜의 당시 이름은 위사이타 비운타(Wiseitta Biwuntha)이다. 그는 지금 전투적 불교의 대표적 얼굴이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3년 7월 위라뚜를 표지모델로 실으며 “불교도 테러의 얼굴”이란 타이틀을 부여했다. 위라뚜도 스스로를 ‘버마의 빈라덴’으로 자칭한 바 있다.

위라뚜는 현재 만달레이 타운 마수예인(Masoeyein) 사원의 주지승으로 있다. 마수예인 사원은 급진적 불교민족주의 전통을 지닌 곳이다. 이 사원의 승려들은 2008년 버마를 강타했던 사이클론 나르기스 사태 이후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 2011년 버마의 개방 정책 이후 부각된 중북부 지방의 토지수탈 (Land Grab)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표적 사례인 ‘라파다웅 캠페인’에 참여한 승려중에는 마수예인 사원 출신이 많다. 라파다웅은 군이 공식 소유한 기업 미얀마 이코노믹홀딩스(MEHL)과 중국 기업 완바오가 함께 개발 중인 구리광산지대다. 2012년 12월 미국 무부 동남아 담당 국장 이케 리드(Ike Reed)등 미 대표단 일행은 라파다웅 문제를 두고 이 사원을

불교 극단주의 969운동 로고. 로고 위에 아웅산 장군을 비롯한 아웅산 수치 가족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걸로 보아 아웅산 수치와 969을 동시에 지지하는 이로 추정 (사진 : 이유경)





우 위라뚜 승려의 거처에는 자신의 사진과 초상화가 적잖이 걸려 있다. 그는 불교극단주의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사진 : 이유경)

방문하여 우 위라뚜를 비롯한 승려대표들을 만난 적이 있다.

“969는 극단주의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은 물론 작은 미물까지도 존중한다. 살생과 피보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종교를 모욕하지도 모욕을 부추기지도 않는다”

2013년 8월, 우 위라뚜가 필자에게 건넨 ‘969 정책 리플릿’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969 로고를 달고 확산되는 위라뚜의 무슬림 혐오설교는 그즈음 무슬림 겨냥 폭력이 발생하는 곳마다 울려 퍼졌다. 그해 3월 20일, 만달레이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정도 달려 이르는 소도시 맥틸라(Meiktila)의 무슬림 학살은 대표적인 사례다. 표면적으로는 이날 금은방을 운영하는 무슬림 상인이 불교도 고객과 언쟁이 벌어지면서 폭력사태가 건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그러나 이미 안티 무슬림의 기운은 이 도시 깊은 곳에서 고조되고 있었다. 폭동이 발생하기 여러 달 전부터 위라뚜는 이 지역 설교 투어에 집중했다. 그 시기 이 지역에 배포된 리플릿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매일 매일 한 무리의 ‘칼라’(Kalar, 피부색이 어두운 이들 즉 무슬림을 비하하는 용어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 무슬림의 ‘니그로’식 호명)들이 모스크를 갈 때마다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 우리를 지원해 줄 이가 필요하다”

증오설교→증오 리플릿→그리고 폭동

3월 20일 부터 4일간 계속된 불교도들의 폭동은 국가공권력의 철저한 방관과 협조로 마치 잘 짜여진 각본마냥 진행됐다. 모스크, 마드라사(이슬람 학교)와 학생들, 무슬림 거주구역 등 이슬람에 관

한 모든 것들이 공격받았다. 공식 희생자는 44명이다. 그러나 이 학살을 가장 밀도있게 리서치한 <인권을 위한 의사회>는 사망자를 최소 148명으로 보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은 ‘마드라사’ 기숙사에 머물던 10대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4천명의 국내피난민(IDPs)이 발생했다. 맥덜라는 지난 10월 첫 주말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학살 후 3년 피난민 생활을 접고 자신들의 본 주거지로 돌아가려던 무슬림들을 성난 불교도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성난 불교도들의 물리적 ‘제지장면’은 2013년 8월 21일에도 연출된 바 있다. 그날 유엔 인권대사 토마스 퀸타나(Thomas Quintana)는 현지 조사차 맥덜라를 방문했다. 그러나 200명가량 되는 불교도 시위대의 폭력적 제지를 받았다. 이때 퀸타나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던 이는 소위 버마의 민주화 세대로 불리는 ‘88세대’소속 민 카잉이라는 인물이다. 이는 안티 무슬림 캠페인에 관련한 소위 ‘민주대 반민주(혹은 독재)’의 정치적 색깔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분열과 분파가 모자라지 않은 버마 사회는 그러나 이슬람 포비아 깃발 아래서 만큼은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불교를 국가적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극우민족주의를 상식으로 포장하는한 이와같은 통합에 금이 갈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969 운동이 민족주의를 진지하게 흡수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이 따른다. 민족주의에 대한 그들의 단상은 난잡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정책’ 리플릿에 담긴 온갖 “민족주의”가 이를 말해준다.

“(969운동은) 민족주의 같은 정치적 의제는 없다. 다른 종교를 모욕하

맥덜라 타운. 2013년 3월 폭동이 지나간 자리
건물이 남아 있지 않다. (사진 : 이유허)



지도 모욕을 부추기지도 않는다. (중략) 우리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거부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중략) 우리는 민족주의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다. 결혼할 때도 민족주의를 염두해 뒀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민족주의의 가치를 숭고하게 답하라”

‘결혼할 때도 민족주의를 염두하라’는 이들의 설교는 이 운동이 갖는 소비니즘적 여성주의를 담고 있다. 그들 프레임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민족과 국가의 순결한 관리대상이다.

2014년 1월 15일 만달레이에서 출범한 불교 극단주의 조직 ‘종교와 종족 보호 위원회’ 즉 마바따(Ma Ba Tha)는 이점을 과감없이 증명했다. 마바따는 969 운동의 자매 조직격이다. 사실상 겹친 조직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인적 구성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마바따의 수사는 969 운동에 비해 좀 더 진지한 민족주의 성향을 담고 있다. 자문 변호사, 국제담당 서기 등 전문적 인적구성을 보유한 것도 특이하다. 이들이 출범시 내건 모토는 ‘소승불교 보호와 민족성 보호’였다. 그러나 출범직후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바로 ‘종족과 종교보호’를 위한 4개 법안 통과였다.

이 법안들은 사실상 안티 무슬림 정책의 일환이자 동시에 여성혐오적 애국주의나 다름없다. 이 법안들은 다른 종교간 결혼을 금지하고,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며 ‘가족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의 출산은 3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바따의 법률 자문 위원인

2013년 맥델라 타운 금은방 연쟁으로 시작된 폭동 이후 4천명 가량 피난민이 발생했다. 3년넘게 난민캠프에서 지내던 이들은 최근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불교도들의 물리적 제지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진 : 이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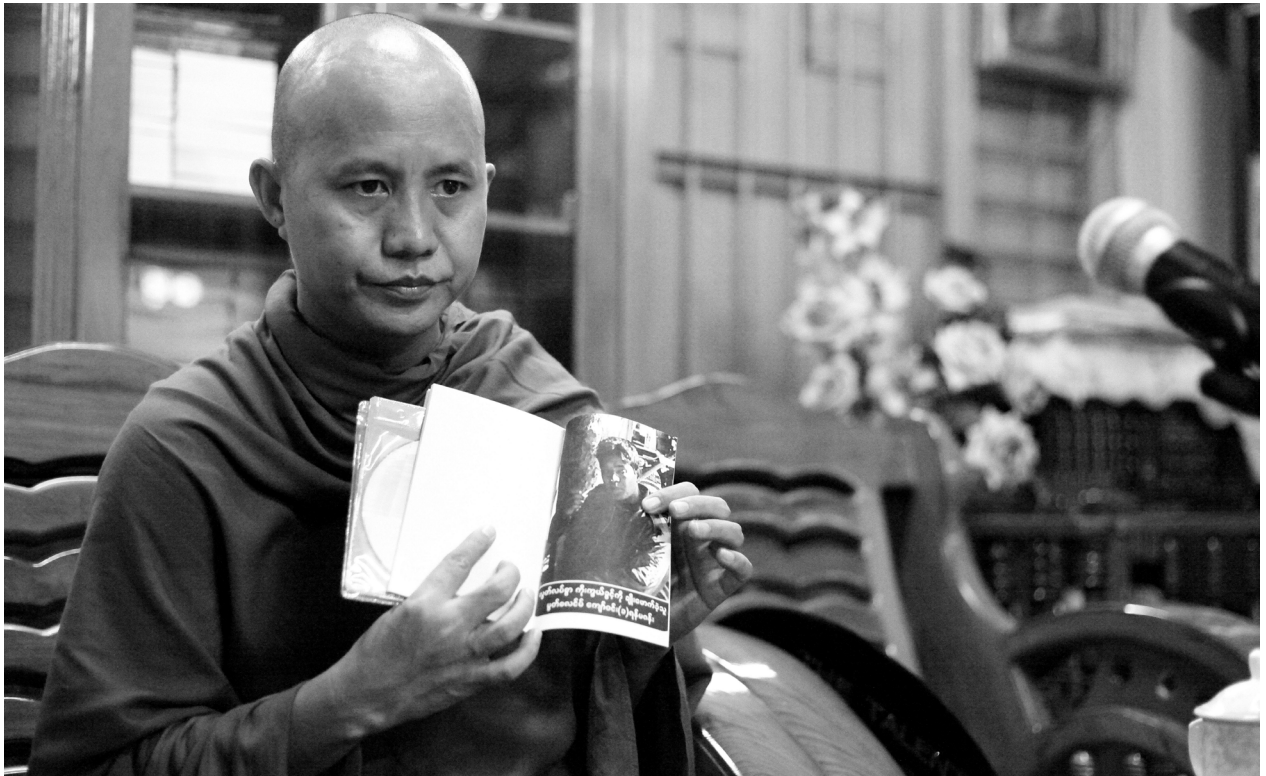
우 에 파잉(U Aye Paing)은 이 네개의 법안이 “불교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며 ‘보호대상’을 구체적 종족과 종교로 지목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9월 총선 직전 전임 정부하에서 승인됐다. 969운동 위라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도 바로 이 여성문제다. 그는 무슬림 남편에게 얻어맞는 불교도 아내들의 고발 청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모았다는 사례들에 대한 검증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럼에도 그의 외침은 자명하다. ‘무슬림들이 불교도 여성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무슬림들이 불교도 여성을 억압한다” : 위라뚜

2011년 버마가 개방 노선을 걸으면서 폭발적으로 발발한 안티 무슬림 폭동에는 거의 늘 ‘여성’이 등장했고 강간 수사학(修辭學)은 불교 극단주의자들의 동력이다. 2014년 7월 1일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안티 무슬림’ 폭동도 그중 하나다. 이 폭동은 “불교도 여성이 찻집을 운영하는 두명의 무슬림 형제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소문에서 시작됐다. 소문의 최초 근원지는 틱 투 르윈이라는 이의 블로그 포스팅이었다. 이 포스팅을 일파만파 키운 건 위라뚜의 (지금은 삭제된) 페이스북 포스팅이었다. 위라뚜는 “마피아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들이 타운으로 오고있다”며 선동적 톤으로 타이틀을 잡았다. 그리고는 “검과 창으로 완전 무장한 지하드(무슬림)가 현지 불교도들을 공격할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위라뚜의 포스팅이 올라간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폭동은 시작됐다.

만달레이 마수예인 사원 위라뚜 승려의 거처 입구에는 무슬림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불교도 장면을 전시해놓았다. (사진 : 이유경)





위라뚜 승려가 아내를 구타한 무슬림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위라뚜 승려는 무슬림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불교도 여성 사례 고발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사진 : 이 유경)

폭동 당일인 7월 1일 “버마출신 망명객”이라는 자기소개를 건 ‘라 우(Hla Oo)의 블로그’는 폭동관련 정보를 자세히 전하며 마치 동참을 자극하듯 불을 지폈다. 그러나 강간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해 <알자지라> 탐사팀 보도에 따르면 강간 소문의 주인공 퓨퓨민(Phyu Phyu Min)은 궁핍한 환경에 이끌려 돈을 받고 ‘강간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바따 승려 아이다팔라 (Sayadaw Eindaparla)는 <미얀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마바따 운동의 출범이 2012년 “아라칸 여성 강간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말한 ‘2012년 강간 사례’란 그해 5월 28일 불교도 여성인 ‘마 띠다 웨(Ma Thida Htwe, 27 이하 “띠다”)가 아라칸 주에서 3명의 로힝야 무슬림 남성에게 강간 후 살해당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실로 엄청난 파장과 결과로 이어졌다.

이 사건 후 로힝야 무슬림과 라카잉 불교도간의 커뮤니티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공권력과 불교도들의 적극적 공조는 로힝야를 겨냥한 학살로 이어졌다. 6월과 10월 두 차례 폭동이 발생하면서 최소 280명의 목숨을 잃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는 다음 해 153쪽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 학살을 “인종청소”라 불렀다. 보고서는 그해 10월 23일 므약우 (Mrauk-U) 타운십 안 떼이(Yan Thei) 마을에서 하루동안만 70명의 로힝야가 학살당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지역은 라카잉 불교도들이 그리워하는 마지막 아라칸 왕국이 자리잡았던 곳이다. 그만큼 불교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로힝야 무슬림 문제는 버마의 다른 무슬림들이 직면한 ‘이슬람포비아’ 문제와 또 다른 차원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종교뿐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박해받는 이중박해자이기 때문이다. 맥멀라 무슬림 학살을 자행한 불교극단주의세력에 분노하는 “평화 활동가”들도 로힝야 문제에 관해서는 ‘불법이주자’ 혹은 ‘침입자’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여, 시민권, 이동의 자유, 생계의 자유가 모두 부재하고 두아이 이상 출산금지 법을 유일하게 적용받는 로힝야들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수십년간 박탈당해왔다. 유엔은 로힝야를 지구상 가장 박해받는 마이너리티라 명한 바 있다.

2012년 학살 후 14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무슬림들과 일부 캄만 무슬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군에 의해 강제이주 당했다. 이들은 지금도 아라칸주 주도(主都)인 시트웨 시 외곽 광활한 게토에서 피난민으로 살고 있다. 시트웨 시내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슬림 거주구역 아웅 밍갈라는 철조망에 둘러쳐진 또 하나의 도심 게토다. 21세기 버마의 아파트헤이트다. 지난 해 동남아 해역을 달렸던 보트피플 사태는 바로 이런 환경이 야기한 탈출러쉬의 한 단면이었다.

불교 극단주의 공권력 비호하에 ‘인종청소’ 자행 : 휴먼라이츠 워치

그렇다면 2012년 5월의 불교도 여성 띠다 강간사건은 사실일까. 그해 8월 17일 테인 세인 대통령은 전 종교부 장관을 지낸 묘 뮌 (Dr.Myo Myint) 을 의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임명한 27명을 위원으로 하는 소위 ‘라카잉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조사위원회는 다음해 7월 8일 186페이지에 달하는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12년 폭력 사태의 방아쇠로 띠다의 강간을 들었다. 그러나 이 강간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치범 출신 코미디언이자 이 위원회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자가나르(Zaganar)는 띠다를 부검한 의사의 소견을 빌어 “강간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한번도 공식화된적이 없다. 다만, 로힝야 문제를 ‘제노사이드’ 과정으로 분석해온 버마학자 마웅 자니의 입을 빌어 외부로 알려졌다. 마웅 자니는 자가나르의 증언을 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차례 이 점을 지적해왔다. 팩트상 오류라고. 아울러 마띠다를 강간후 살해했다는 3명의 무슬림 남성은 로힝야가 아니라 두명은 캄만 무슬림 (캄만 무슬림은 135개 공식 인종에 속하며 시민권을 갖고 있다)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라카잉 남성으로 로힝야 가정에 입양된 이라 말했다. 그중 라카잉 남성인 텃 텃 (Htet Htet)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의문의 자살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어쩌면 영원히 미궁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학살은 시작됐다. 누구도 사실과 진실을 파려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 띠다의 강간은 기정사실로 반복 기술되며 이슬람포비아, 안티 로힝야 캠페인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강간 레토릭’, 전투적 불교의 도구

이런 ‘강간 레토릭’은 최근의 또 다른 ‘강간’ 이슈와 대비를 이룬다. 지난 10월 9일 아라칸 주 북부

로힝야들이 주류로 거주하는 마웅도(Maungdaw)에서 무장괴한들이 국경경찰 초소 세 곳을 공격하고 9명의 경찰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각 정부군의 군사작전이 이어졌고 거의 3주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 이상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1만 5천 명(유엔통계)이 피난민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바로 '강간' 문제가 이 군사작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군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로힝야 여성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타임즈>탐사보도 기자 피오나 맥그리거는 10월 27일 로힝야 인권 상황을 수년간 집중 조사해온 <아라칸 프로젝트> 국장 크리스 리와의 말을 인용하여 “10월 19일 한 마을에서만 30명의 여성들이 정부군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대통령실로부터 항의를 받은 <미얀마 타임즈>는 11월 초 피오나 기사를 해고했다.

사실 버마 정부군에 의한 다양한 소수민족 여성 강간 문제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범죄 유형 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버마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노와 비판을 표출해왔다. 이번 로힝야 여성 강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게 흐르고 있다. 강간 소문만으로도 폭도로 돌변하던 불교도들은 공권력이 가

해자로 지목된 이번 강간 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다른 소수민족 진영도 조용하긴 마찬가지다. 오로지 로힝야 디아스포라들과 외국언론 일부만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침묵은 이슬람 포비아가 충만한 버마 사회를 이해하는 이들

2013년 아라칸 주 시뜨웨 시 외곽에 위치한 로힝야 피난민 게토에서 전날 경찰 총격에 부상을 당한 한 남성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중이다. 그러나 게토 안에는 적절한 병원이 없다. (사진: 이유경)





사진 위>아라칸 주 시트웨 시내 아웅밍갈라. 한 남성이 식량 부족한 상황을 마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웅 밍갈라는 2012년 폭동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슬림 구역이다. 그러나 철조망과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으며 거주민들에겐 이동의 자유가 없다. (사진 : 이유경) 사진 아래>아라칸 주 시트웨 시내 아웅밍갈라. 2012년 폭동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슬림 구역이다. 그러나 철조망과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 : 이유경)



예겐 크게 놀라운 건 아니다. 최근 폭력 상황에 대해 진상조사 중이라는 아라칸 주 의회의 한 불교도 의원이 7일 BBC와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는 예의 인종주의에 흠뻑 젖은 발언을 카메라앞에서 스스로없이 했다. 우선 그는 로힝야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가옥을 스스로 방화했다며 군을 변호했다. 그는 또, 정부군에 의한 로힝야 여성 강간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히죽대는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답했다.

“그들(로힝야 여성들)은 더럽고 위생상태도 불결하여 군이든 불교도 남성이든 누구도 그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이 라카잉 불교도 의원의 반응은 오늘날 버마 불교극단주의세력의 정신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제국을 적으로 삼았던 전투적 불교 vs. 박해받는 소수자를 적으로 삼는 전투적 불교

영국 식민시절 전투적 불교의 적이 식민제국이었다면 21세기 전투적 불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자 그룹을 적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들은 적들에게 자비를 보일 필요는 없다 여길 것이다. 필자는 몇 해전 이들의 냉혈한적 수사를 맞닥드리며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자비심을 제거한 그들의 불심엔 이제 외세저항이라는 시대적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다. 이슬람 포비아와 인종주의적 혐오를 뒤집어 쓰고 파시스트 괴물로 타락한 이들, 그게 바로 21세기 버마 전투적 불교의 민낯이다. ✱

본 시리즈 버마(미얀마) 편에서 다루지 못한 ‘독립직후 & 군사정권기 (1960~2010)’ 전투적 불교는 <휴먼라이츠 워치> 2009년 보고서 “승려들의 저항 The Resistance of the Monks”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의 전투적 불교 ③ 태국 편에서는 ‘전쟁을 반대한 승려, 살상을 도모한 승려’가 이어집니다.



이유경(프리랜서 국제분쟁탐사 전문기자)

태국 방콕에 베이스를 두고 아시아의 분쟁과 인권문제를 집중 취재하여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리랜서 국제분쟁탐사 전문기자이다. 한국에서는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2004년 이래 아프간, 버마, 인도,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분쟁지역에서 집중탐사취재를 했다. 그동안 <한겨레21>, 독일 등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2014년부터 KBS 라디오 방콕 통신원을 맡고 있다.

30억 인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바다의 기후변화

민정희 INEB 이사

1885년 지구평균기온이 처음으로 기록된 이래 올해 여름 지구는 최고평균 기온을 갱신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엘니뇨도 기온상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폭염으로 인해 인도에서는 400여 명이 사망했고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매튜는 카리브해 연안을 휩쓸어 800 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염, 가뭄, 태풍, 홍수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면서 바다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양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논의를 시작한지는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전망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4차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해양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사건은 눈에 띄지만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 지표면의 71%,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는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열을 흡수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고, 대부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평균기온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를 지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바다가 이처럼 이산화탄소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대다수 생물종이 멸종하는 결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생물다양성의 손실, 생물종의 멸종은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식량자원의 손실을 낳아 인간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바다는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산소 중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85%까지 생산한다. 더불어 바다는 10억 명의 인구에게 어류 단백질을 공급함으로써 생존유지에 기여하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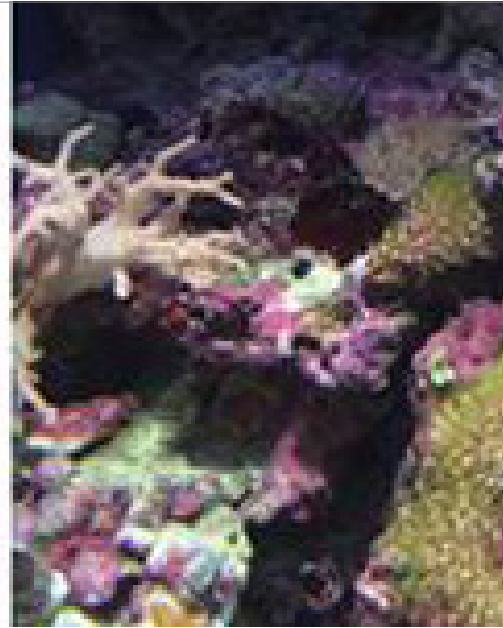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 억 명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최근 해양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해양생물 25%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산호초의 백화현상이다. 산호초의 백화현상은 1998년에 처음으로 관찰되었다. 여름 기간 태평양의 일부 섬에서 산호초에 약간의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되고 있는 산호초의 백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산호초가 분포하고 있는 호주의 그레이트 코랄 배리어, 인도양과 카리브해 산호초 서식지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전문가들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산호초의 백화현상은 수온의 상승,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바닷물의 pH 농도 감소(산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비교적 빛이 잘 들어오며 섭씨 29도 정도의 따뜻하고 얇은 물에 사는 산호초는 바위와 비슷한 모양의 탄산칼슘 구조를 만들어내며 조류와 공생한다. 조류는 산호초의 부드러운 조직에 붙어사는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먹이를 생산해내고, 산호초가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즉, 조류는 산호초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산호초는 조류에게 서식지와 영양분을 제공한다. 산호초의 종류에 따라 공생하는 조류의 종류와 색깔이 매우 다양하다. 이 조류들이 사실상 산호초의 색깔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산호초는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오랜 기간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로 있게 되면 산호초가 약해지고 조류가 서식하기 어렵게 되어 산호초를 떠난다. 조류는 산호초의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류가 떠나면 산호초는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을 보이게 된다. 조류가 떠나 하얗게 변한 산호초는 굶주리게 되어 죽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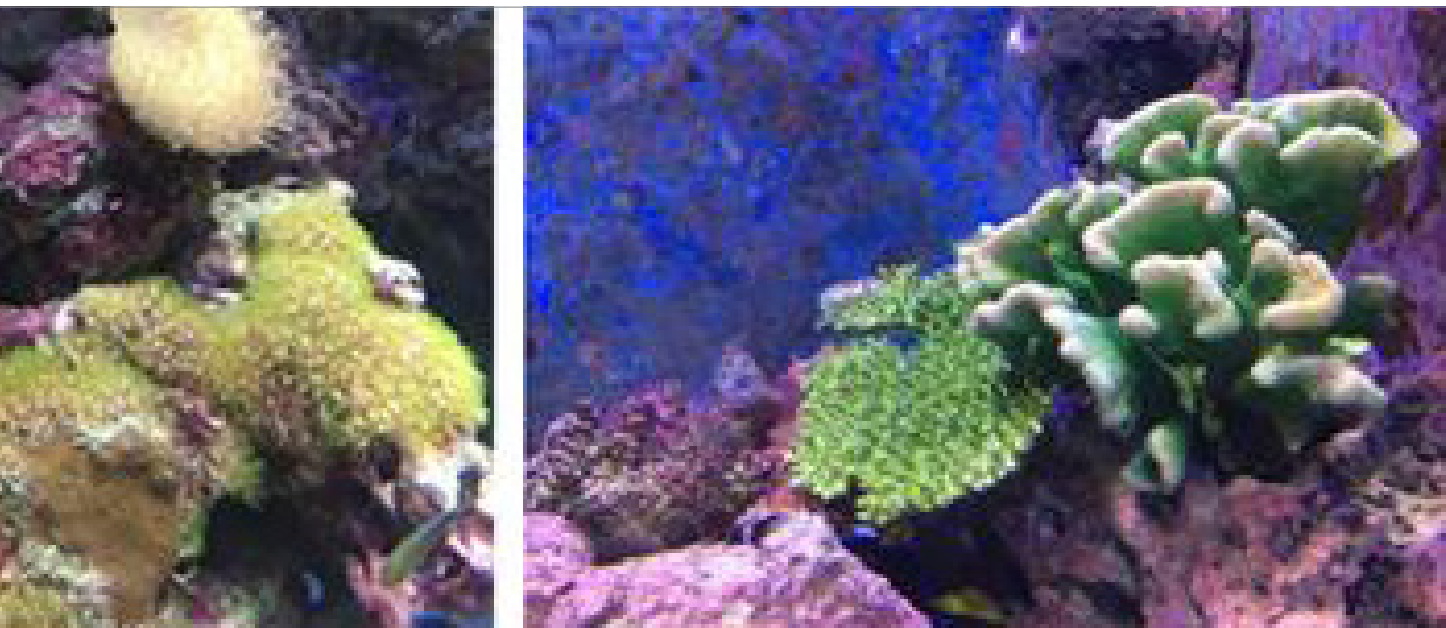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바닷물의 산성화도 산호초의 백화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1/3 가



량을 흡수하였다. 그런데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바닷물의 pH농도가 감소하면서 산성화된다. 건강한 산호초는 자신의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로부터 탄산칼슘을 섭취한다. 바다가 산성화되면, 산호초는 자신의 골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탄산칼슘을 흡수할 수 없고, 산호초를 지탱해주던 구조가 사라진다. 이미 해양의 산성화는 해양의 pH농도를 0.11 단위까지 낮춰놓았다. 농도가 8.179에서 8.069로 낮아졌다는 것은 해양이 이미 산업혁명 이전보다 30% 이상 산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의 산성화는 산호초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라, 조개, 성게도 탄산칼슘의 껍질을 만드는데, 해양의 산성화는 이런 생물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면, 미래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2100년까지 해양의 pH농도를 7.8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낮은 pH농도가 산호초의 골격을 용해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저에서 산호초가 차지하는 면적은 0.2% 밖에 되지 않지만, 산호초는 1백만 종이 넘는 어류와 해면체,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서 지구상에서 생물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한다. 해양의 산성화는 어류의 중요한 서식지가 되는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산호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먹이그물을 손상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어류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는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어업 또는 어업관련 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30억 명의 생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양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래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산호초, 맹그



로브 생태계 보존 등을 비롯하여 해양 보존을, 전 지구적인 우선과제로 삼는 한편 해양기후의 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이주, 분쟁에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산성화로 대표되는 해양기후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산성화와 이로 인한 산호초의 백화현상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열을 흡수해온 바다의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해양의 산성화는 더욱더 증가해서 더 많은 산호초가 파괴될 것이고 어류 단백질을 공급받는 10억 인구에 식량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산호초의 미래와 수많은 바다생명의 미래, 더 나아가 식량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인간이 지구에 사는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포집할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가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있어서 중요하다. *



민정희(INEB 이사)

대불련 지도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노동위 간사,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홍보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기후생태(ICE)네트워크> 사무국장, INEB 이사, 아시아불교생크탱크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2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교간대화' 참석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경제를 이끌 말머리, ‘이어짐’

변택주 작가

요 몇 해 사이 부쩍 많이 듣는 경제용어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이란 무슨 말일까? 네이버 사전에는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또는 그런 것.’이라고 나와 있다. 다음 사전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계된 것. 또는 그러한 것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 말대로라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성을 띤 경제’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성을 띤 기업’이라는 말이다. 사회성을 벗어난 경제나 기업은 없다. 그런데 굳이 사회적이라는 군더더기를 붙인 까닭은 뭘까?

사회‘적’ 경제? 사회성 경제

나는 사회적이니 구체적이니 감동적이니 시적이니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사람에게 문예창작을 가리키는 대화과정에 잠깐 다닌 적이 있다. 강의하는 소설가에게 감동과 감동적이 어떻게 다르고 시와 시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었다. 함께 공부하는 이들은 뜬금없이 뭐 그따위 시시껄렁한 것을 묻느냐는 듯이 눈총을 쏘았다.

“감동이야!” 하면 되는데 굳이 글씨 하나를 덧붙여서 “감동적이야!”하는 까닭이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이란 꼬리말이 품은 뜻은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뉘뉘 같다’, 닮았다는 것이

다. ‘감동답다?’ 어색하다. ‘시적표현’이라는 말도 시가 아닌데 시답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아닌 사람이 쓴 어설픈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말이 마뜩치 않다. 굳이 사회를 아우르는 경제나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사회성 경제나 기업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투덜거리기에 앞서 사회적 경제가 뭘지 훑어봤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때가 한국정부가 2007년 1월 13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 펼치면서부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싶다는 표현을 쓴 까닭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란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부추기고 북돋우는 경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일컫는 ‘economy’ 말뿌리는 라틴말에서 왔다. 풀어보면 삶터‘eco=oikos’를 꾸리기‘nom=law’로, 우리말로 하면 집안 살림 또는 살림살이다. 좁게는 가정을, 넓게는 부락을 어떻게 꾸려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담긴 낱말이다. 주어진 자원(식량이나 땀, 감, 입을 거리 따위)을 어떻게 아껴 식구들을 살릴 것인가 하는데서 비롯한다. 거둬들이는 벌이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데서 비롯한 것이 경제 개념이다.

얻은 것을 알뜰살뜰 아껴 써서 식구를 살리는 집

안 살림살이가 조금씩 넓어져서 마을 살림살이로 바뀌어 왔다. 농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림이 뭔지' 짚는 것이다. 경영 강의를 할 때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살림이 무어나고 물으면 백이면 백이 다 어머니나 아내가 하는 집안일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반만 맞았다. 살림은 본디 죽음과 맞서는 말씀이다.

경제에는 '넉넉하지 않은 자원을 어떻게 알맞게 나눌 것인가?' 하는데 힘이 실려 있다. 이어서 '자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하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경제성장 비결은 희소한 자원 효율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 그동안 이론 경제성장에는 숨겨진 자원을 캐내거나 농업이나 산업기술발달에 따라 생산성이 늘어난데 있다. 아울러 소비자를 거둬들이는데 그 비결이 있었다. 이제는 기술이나 생산성이 넘쳐난다. 앞으로 희소한 것은 뭘까? 세계는 평평해졌다지만 오늘날 희소자원은 '이어짐'이다.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고갱이는 '이어 아우름'에 있다.

SNS는 진정한 이어짐 못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메아리칠 뿐

SNS 덕분에 세계 사람들이 다 이어져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드문데 어떻게 연결, 이어짐이 희소한 자원일 수 있느냐고 묻는 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SNS는 군중들에게 새로운 아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지그문트 바우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람들 연결(정체성)은 태어난 곳에 따라 이뤄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이주민 집단으로 조각조각 나뉘었다. 이제 스스로 연결을 빚어 나가려면 제가 담길 공동체를 저마다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 대신 SNS를 만들었다. 아쉽게도 SNS는 공동체를 살릴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SNS와 공동체가 다른 것은 공동체에는 그대가 담기지만 SNS는 그대에게 담긴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공동체와는 달리 SNS 밋들은 얼마든지 그대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SNS는 그대가 겪는 외로움과 따돌림을 겪는다는 느낌을 줄여주지만,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사람 사이는,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지우고 맺을 수 있는 SNS 밋처럼 간단하지 않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배워가야 하는 사귀이 SNS 때문에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다. 참다운 얘기바람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으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SNS에서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메아리칠 뿐이다. 다시 말해서 SNS 창에 비치는 얼굴은 제 얼굴일 뿐이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SNS는 매우 쓸모 있지만 덧이기도 하다.”

어울림이란 닮은 것들이 끼리끼리 뭉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끼리끼리 뭉쳐 패거리를 만들어서는 꽤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다름과 다름이 서로에게 결을 내어주며 서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우름이 움튼다. 붓다가 말씀하는 화엄누리도 마찬가지다. 키나 몸집이 작고 크고를 떠나 두루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인드라마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것은 이어짐이 아니다.

경제에는 서로서로 부추기고 북돋우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이 이미 담겨 있다. 군이 이름을 새로 붙여야 한다면 사회적 경제라는 어설픈 이름보다는 좋은 경

제나 기업, 사랑어린 경제나 기업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가 '갓길'이라고 부르는 고속도로 길 가장자리를 예전에는 '노견'이라고 불렀다. 일본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대로 풀어쓰면 어깨길이다. 이것을 길 가장자리니까 갓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 사람은 당시 문화부장관이던 이이령 선생이다. 그때 이이령 선생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여태도 노견이라고 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길 어깨'라고 불렀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용어보다,

사랑어린 경제 또는 인드라망 경제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열결이 달라진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딘지 거북하다. 좋은 또는 사랑어린 경제나 기업이라면 부드럽고 좋지 않은가. 불자들은 '인드라망 경제'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나는 경제를 잘 모른다. 그러나 실물경제 가운데 한 축인 기업 경영은 웬만큼 해봤다. 그리고 경영코치를 몇 해 했으니 기업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꼭지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설였다. 먼저 내가 경제를 아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비판이나 비평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둑은 둔 적이 없지만 어려서 장기는 조금 둔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하수한데도 번번이 지곤 했다. 줄 하나라도 덜 죽이려고 몸부림치다가 꼼짝없이 막대한 골목으로 몰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영코치를 하는 6년 여 동안 '경영은 살림'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까닭도 거기서 왔을 것이다. 애정 어린 비판 글보다는 추켜세우기만 하지 않을까 싶어졌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가운데는 웅글고 다사로운 구석이 있기 마련이니, 그런 걸을 드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더듬 더듬 사랑어린 기업이나 가게 얘기바람을 풀어놓아

보려고 한다.

농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경영은 본디 무엇을 망치는데서 비롯한다. 농업혁명은 화엄누리, 자연을 망가뜨리는 바탕에서 일어났다.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서 어떤 경제활동도 망가뜨리는데서 걸음을 뗀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망가뜨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참고 견뎌야 한다.

철이 없을 때 절집에서 얘기하는 '사바세계'를 무조건 참고 견디는 세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기만 해야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인가?' 한숨을 내쉬는 적도 있다. 철들고 나서보니 사바세계는 '기꺼이 참고 견디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밝음만 있고 어둠이 없거나 무더운 여름이나 차디찬 겨울이 없이 선선하고 다사로운 봄가을만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세상에선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위와 추위가 없는 세상에서는 곡식이나 채소, 과일이 열릴 수 없으니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첫머리부터 좋은 기업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가게를 알려려고 했다.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내가 글을 쓰는 까닭을 먼저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뒤가 맞지 않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어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불자로써 부처님 숨결을 이은 열결에 따른 경제나 경영 얘기를 힘닿는 데까지 하려고 한다. 잘못알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라. *

- 2편으로 이어집니다.



변택주(작가)

경영코치로서 살림에 맞선 말은 '죽임'으로 '가정경영, 기업경영, 나라경영' 모두 너를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바탕에서 피어오른다고 생각한다. '꼬마평화도서관을 여는 사람들'과 '오라차차 영세중립코리아' 바라지를 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는 <법정 스님 숨결>, <법정, 나를 물들이다>,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등이 있다.

리규룡 부위원장과 금강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날 조불련을 대표하는 스님”
“교학과 불교의식에 정통한 학승(學僧)”
“천하절승 금강산 승려를 자칭”

리규룡 조불련 부위원장은 대선사(大禪師) 법계이다. 현재 조불련을 대표하는 스님 중의 한명이다. 리 부위원장은 강수린 위원장을 대신하거나 공식 법회와 행사에서 대표로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남북불교와 국제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조불련을 대표하고 있다.

필자와는 1996년 9월 중국 북경의 해당화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올해로 20년 인연이다. 필자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만난 북한의 스님으로 꼽을 수 있다. 평화통일불교협회(약칭 평불협) 사무국장으로서는 1996년 북경에서 리규룡 부위원장(당시 책임부원)을 처음 만났다. 그 당시, 필자와는 속세 나이가 똑같아 더 친근하게 우의를 나누었다.

“우리 오래토록 만납시다”, “통일일꾼을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등 북경 해당화식당에서 나눈 대화들은 불제자로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고 여겨질 만큼 2박3일의 일정이 너무 짧았다. 그 후로는 거의 매년 1회 이상을 리 부위원장과 만나 안부를 묻고 공동사업은 물론, 불교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가졌다. 그 때에는 책임부원과 사무국장이

라는 실무자였기에 각기의 감정과 사생활을 다루기에는 양측 어른 스님들의 눈치밥이 더 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이 리규룡 부위원장은 지금 말고 있는 직책만 보더라도 필자와는



리규룡 조불련 부위원장

격이 다른 인물이다. 작금의 북한불교 대표 리더를 도반으로 하기에는 필자의 성장이 미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3일 개성 영통사에서 다시 만나서 리 부위원장과 깊은 포옹을 가졌다. 따스한 온기를 서로 느끼며 “나이든 모양입네다”, “이제 이 국장이 아니라 소장이라 불러야겠구먼”, “이 소장이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등등 같이 나눈 말들에는 정(情)과 격(格)이 가득 묻어났다.

하룻날 일정으로 대표로서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간의 속정을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꼭 말로 하는 것만 아닌 것 같다. 수차례의 눈짓과 곳곳에서 배려하는 행동으로도 개성에서의 만남은 동지와 불교도의 의미를 교감할 수 있었다. “(리 부위원장) 그 사진 많이 찍어서 뭘 할겁니까?”, “(필자) 조불련의 역사를 잘 기록해야지요”, “(리 부위원장) 책 보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정리해 주어 감사합니다.” 이것은 필자가 2010년에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의 요청으로 《남북불교교류의 흐름 - 남북불교교류 60년사》를 책임 집필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한 불교교류사의 주요한 골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구한말까지 ‘금강산 승려’는 불교를 대표하는 신분 자격에 가까운 표상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북한 스님들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만 해도 기쁜 일이다. “(리규룡) 부위원장 스님이 출가한 곳은 어딘가요?”, “어디긴요. 금강산이지요.” “그럼 표훈사인가요”, “그렇다고 해 둥시다” 등 말문에서부터 금강산에 대한 자랑이 펴 났었다.

일찍부터 옛 스님들은 스스로 칭하기를, 금강산인(金剛山人)이나 내금강인(內金剛人), 백화도인(百花道人)이라 표현하기를 즐겼다. 이것은 곧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승려임을 가리킨다. 또한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뜻으로도 통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칭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가장 자랑스러운 명칭 내지 별호로 썼다고 한다.

1900년대 미국 여류작가 님 웨일즈(Nym Wales)의 《아리랑》(1941년판)에서 ‘금강산의 붉은 승려’로 등장하는 김충창(운암 김성숙), 상해 임시정부 등과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수원 용주사 출신의 신상완(申尙玩) 스님은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금강산 승려’라 칭했다. 특히, 신문에 기고한 「日本이 韓國佛敎에 對한 압박壓迫」이란 논설《韓日關係史料集》에서는 금강산 승려로 적고 있다. 금강산이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금강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불교성지로 알려졌다.

금강산(金剛山)은 일찍이 3천의 승려가 수행하던 곳인 유점사를 비롯하여 4대 사찰 그리고 최남선이 ‘1만 2천 금강의 심장’으로 부른 마하연(摩訶衍) 선원 등이 있는 금강산은 조선불교를 대표하던 ‘금강산의 붉은 승려’들이 살며 수행하던 곳이다. 이로 말미암아 불교가 금강산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금강산에 사찰과 암자(刹庵)들이 건립된 시기는 5~6세기부터이다. 대규모 사찰은 6~9세기에 걸쳐 금강산을 가득 채우게 된다. 금강산 4대 명찰인 유점사(楡岾寺),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 신계사 등이 건립되었다. 그 밖에도 내금강에 정양사, 마하연사, 장연사, 문수사 등과 외금강에 발연사, 송림사, 도산사, 금장사, 삼장사 등 유명한 사찰이 있었고, 또한 신림암(神琳庵), 안양암, 보덕암, 만회암, 영원암, 보운암, 상운암, 불지암 등을 비롯한 수많은 암자들이 세워졌다. 3대 옛탑(古塔)으로 불린 정양사·장연사·신계사 3층탑과 그리고 금장암 3층 사자탑, 화천리 5층탑 등이 남아 있다.

흔히, 금강산의 많은 절에 대해 노랫말에까지 등장하는 ‘금강산 팔만 구암자’(八萬九庵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금강산에 사암(寺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팔방 구암자(八房九庵子)가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 들어와 잘못 일컫는 경우이다. 전쟁 때 소실된 내금강의 유점사, 장안사와 더불어 현존하는



내금강 표훈사(사진: 필자제공)

표훈사, 다시 복원된 외금강 신계사와 같은 사찰은 ‘여덟 전각과 여덟 방사(八殿八房) 그리고 산내(山內)에 암자 아홉 개소를 두는 것’이 가람배치와 사격(寺格)에 따른 일종의 기본 원칙이었다. 옛날부터 ‘팔방 9암자’를 둔 대규모의 사찰이 아니면 전각에 주련(柱聯)을 붙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의 팔방(八房)이 언제부터인가 말뜻이 와전되어 팔만(八萬)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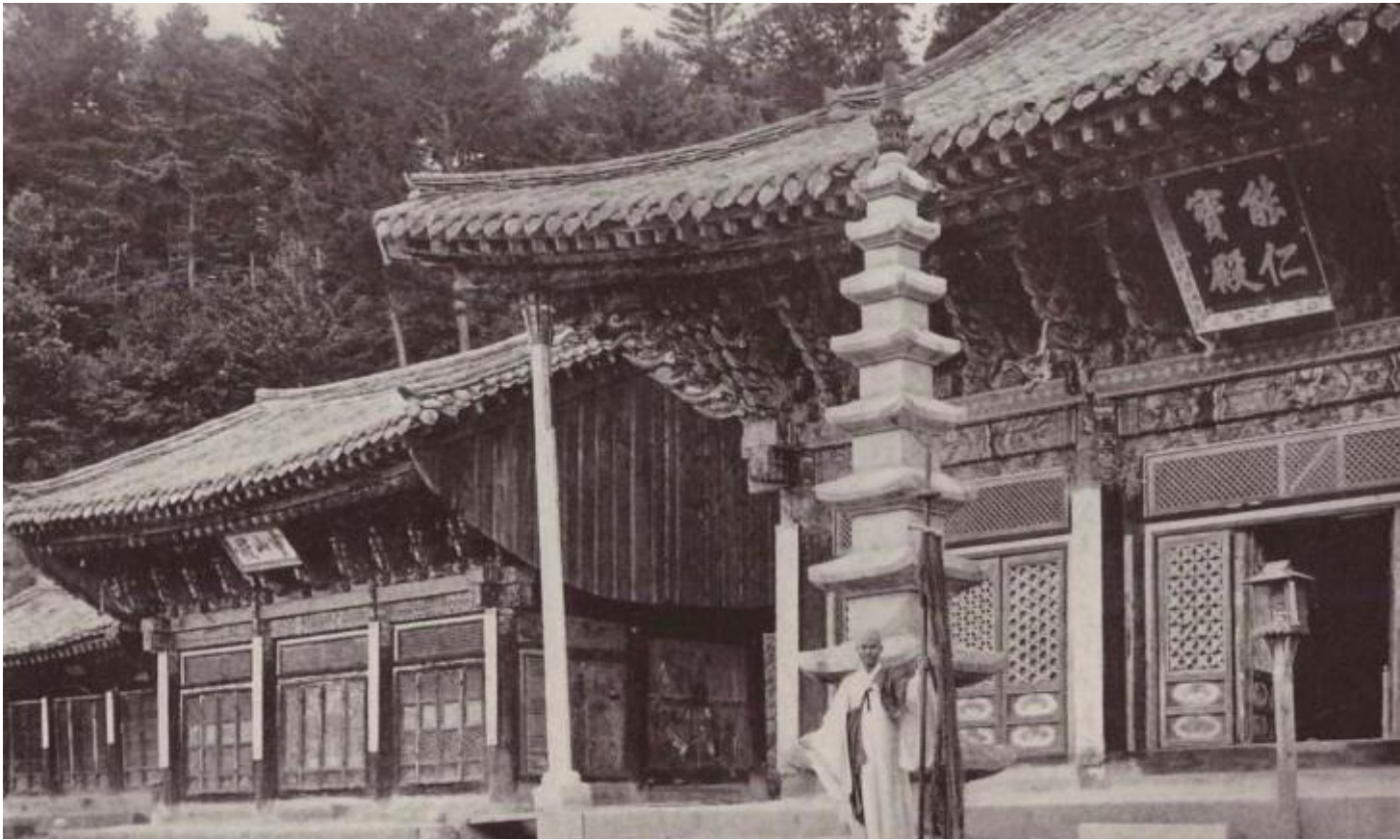
지금, 금강산에 현존하는 사찰은 내금강의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마하연 칠성각, 불지암과 외금강의 신계사 6곳이 유일하다. 유점사와 장안사, 신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강산 사찰과 암자는 6·25 한국전쟁 때 미군 폭격이나 실화로 소실되었고, 1960년대 이후 전쟁복구 시기에도 대규모의 홍수와 산불 등으로 소실된 경우도 많았다. 그 중에서 신계사는 지난 2004~07년까지 남북공동 복원사업(조계종-조선불교도연맹)으로 추진되었다.

예로부터 사찰들이 많기로 유명한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의 금강산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

다”는 중국인들의 말이 첫 번째이다. 이 유래는 《조선왕조실록》「태종실록」태종 4년 9월 기미조(條)에 기록되어 있다. 왕(太宗)이 하륜·이거이·성석린·이무·이서 등과 정전에서 정무를 논하다가 “중국 사신들이 (조선에) 오기만 하면 왜 금강산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자, 재상 하륜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일찍이 송나라 시인(소동파)이 노래하기를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願生高麗國 親見金剛山)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즉, 당송(唐宋) 8대가로 불리는 소동파가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재상 하륜이 왕의 질문에 한 번도 고려를 방문한 적이 없는 소동파를 대답 속에 끌어들여 그의 유명세를 핑계로 삼은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두 번째의 유래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고, 1460년(세조6) 매월당 김시습이 금강산을 직접 순례하고 쓴 『당유관동록후지』이다. 또 16세기 양사언의



내금강 유점사 능인보전과 승려 (사진: 필자제공)

『금강산유람기』에 실은 금강산을 예찬한 시일 것이다. 근대에는 육당 최남선이 1928년에 쓴 『금강예찬』에 이 한 구절이 다시 기록될 만큼, 이 글귀를 통해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먼 옛날 시인묵객과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노래로 자주 회자되었다.

그리고 금강산에 대한 예찬은 그 자체가 금강산이다. 금강산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 나머지 자신의 호를 스스로 봉래(蓬萊)라 칭한 조선 중종 때의 양사언이다. 조선전기의 4대 명필 양사언은 내금강 만폭동의 평평한 돌에다가 초서(草書)로 쓴 ‘봉래풍악 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이라는 여덟 글자를 커다랗게 새겨 놓았다. 이에 대해,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종환이 쓴 『택리지』에는 양사언이 내금강 계곡바위에 새긴 여덟 글자를 “이 글자의 획이 살아 움직이

는 용과 호랑이(龍虎) 같으며 날개가 돌아 하늘로 너울너울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고, 이 글씨는 속설에 “만폭동 경관의 값이 1,000냥이라면 그중 500냥은 양사언의 글씨 값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표현하였다.

철따라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금강산은 그 때문에 계절마다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다. 봄 금강산(金剛山), 여름 봉래산(蓬萊山), 가을 풍악산(楓嶽山), 겨울에는 개골산(皆骨山) 등으로 불린다. 금강산을 예찬한 수많은 예인들의 향연에는 이름 모를 백성들과 수행자의 숨결까지 고스란히 서려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단혀있는 금강산은 개골산, 열반산의 이미지로 변신하고 있다. 과거에 금강산 승려로

불리던 스님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다. 수행의 전형으로 선 보였던 지난 2007년까지의 신계사 도감제도는 단절되었지만, 오늘날 북한 스님들에 의해 다시 변화하고 있다. 금강산의 붉은 승려로 지칭하는 리규룡 조불련 부위원장 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스님들은 평상시에 양복을 착용하지만, 불교의식 등에서는 붉은색 가사인 홍가사(紅袈裟)를 입는다.

1989년부터 평양의 조불련 중앙위원회에서 책임부원(부장급)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리 부위원장은 1964년 평양에서 출생했다. 리 부위원장은 2005년 11월 입적한 고 박태화 위원장의 상좌이다. 세납 25~26세 때에, 조불련의 불학원과 법계위원회를 거치 ‘연암’(蓮庵)이란 법명을 받았다. 지금은 대선사의 법계를 가지고 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출가한 리규룡 부위원장은 1989년부터 평양의 조불련 청사 법당 및 사찰, 불교학원(佛學院)에서 염불 등 불교의식을 담당하는 등 북한 불교를 대표하는 교학과 불교의식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1996년 9월 중국 북경 남북불교 회의에 처음 참석한 연암스님과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그동안 조불련 중앙위원회의 주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염불 등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였다. 특히 2003년경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조불련 중앙위원회의 포교부 부장(책임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7년부터 개성 영통사 복원 이후 주요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2009년 5월 조불련 중앙위원회 서기장에 공식 취임한 연암 리규룡 스님은 남북한 교류 및 국제교류 등 주관하는 조불련 서기국을 총괄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연암스님의 대표적 인 교류사업 활동은 2003년 3월 2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에 당시 황병준/대 부위원장(2004.9.8 입적) 등과 함께 직접 참가하였다. 2009년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3.1절 민족대회_봉은사 기념촬영(사진: 필자제공)

복원 2돌 기념법회를 주관한데, 이어 매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와 개성 영통사 대각국사 의천스님 다례재 등을 주관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불교를 대표하는 조불련 리규룡 부위원장이 스스로를 ‘금강산 승려’라 칭하기까지 꼭 60년이 흘렀다. 옛 조사와 선사들이 칭한 별칭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에까지 그 명칭이 쓰인 것은 일종의 대단한 스펙(specification)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지난해 말 개성 영통사에서 리규룡 부위원장 스님이 직접 “나도 금강산 승려다”라고 한 의미에서 불교적 수행이 강조되고, 불교의 전통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

- 다음 달에는 ‘소명 차금철 서기장’ 편이 이어집니다.



이지범(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20여년간 통일과 북한불교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현재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왕산과 옥류동천 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왕산은 한양의 내사산(內四山) 중 우백호(右白虎)에 해당하며 달리 필운산(弼雲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왕산이 임금이 계신 궁궐의 오른쪽에 있어 “군주는 오른쪽에서 모신다.(右弼雲龍)”는 의미로 필운산이라 하였고 이항복의 집이 있었던 필운대(弼雲臺)라는 지명도 이로부터 나왔으며 인왕산이 품고 있는 계곡을 옥류동천(玉流洞天)이라 합니다.

인왕산이 품은 계곡 옥류동천

인왕산이 동쪽으로 부러놓은 터전이 넓고 수려하여 경회궁, 인경궁, 자수궁, 사직단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맑은 계곡에 기암괴석과 송림이 어우러져 조선 사대부들의 살림터와 정자가 많았는데, 세종과 송강 정철의 탄생지, 영조의 잠저(潛邸)인 창의궁(彰義宮), 안평대군이 살았던 수성동(水聲洞)의 비해당(匪懈堂), 조광조의 제자 성수침(成守琛)의 집터 청송당(聽松堂), 이항복(李恒福)의 집터 필운대(弼雲臺),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헌의 집터 청풍계(淸風溪)와 서인(庶人)과 중인(中人)들의 시회(詩會)를 열어 위향문학(委巷文學)을 부흥시킨 천수경(千壽慶)의 정원(亭園)인 송석원(松石園)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왕산의 서쪽으로 부러 놓은 터전은 수려하고 그윽하기는 하나 넓지 못하여 안평대군의 무계정사(武溪精舍), 대원군의 석과정(石坡亭) 등 왕족의 별장이 몇 채 있었을 뿐입니다.

석과정(石坡亭)의 원래 이름은 삼계정(三溪亭)으로 삼각산의 문수봉(文殊峰)과 보현봉(普賢峰) 그리고 북악(北岳) 사이로 흘러내리는 세 물줄기가 하나로 모여 홍제천(弘濟川)이 되어 난지도(현재의 하늘공원)에서 불광천(佛光川)과 만나 한강(漢江)으로 합류하는데 계곡이 시작되는 곳에 지은 별장이라고 삼계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계정은 철종 대(哲宗代)에 영의정을 지낸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인 김홍



한양의 우백호 인왕산(사진: 필자제공)

근(金興根)의 별장이었으나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이 잠시 머물기로 하고는 그냥 눌러 앉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정자의 이름을 석파정으로 바꾸고 자신의 호도 석파라 하였습니다.

대원군 별장 석파정과 서울5경 세검정

석파정의 본채는 부암동 터널 입구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별채는 서예가 손재형(孫在馨)이 자신의 한옥을 지을 때 사들여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으며 ‘대원군 별장’으로 명명되어 본채와 무관하게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별도로 지정되었는데 한국식과 중국식이 혼합된 새로운 건축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 건축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원군 별장’을 나와 홍제동쪽으로 인도를 따라 조금만 가면 왼쪽으로 인왕산에 오르는 나무계단이 나타나고 조금은 가파른 산자락을 올라가면 탕춘대성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고 산성은 도중에 끊어져 있습니다.

인왕산의 서쪽능선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문(彰義門)에서 바로 인왕산에 오르기 때문이며 능선에 올라 호젓한 소나무 길을 걸어가면 도시에서 커커이 쌓인 홍진(紅塵)이 말끔히 씻어지는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능선에 있는 너럭바위에 앉아 멀리 산줄기를 조망해 보면 서남쪽으로 보현봉, 문수

봉, 승가봉, 사모바위, 비봉, 향로봉 수리봉으로 뻗어 있고 동남쪽으로는 보현봉에서 형제봉을 지나 구준봉을 거쳐 백악에 이르는 능선이 뻗어 있습니다.

이 두 능선 사이의 계곡을 아름다운 바위와 맑은 물로 유명한 한양 5경의 하나인 '세검정 계곡'이라 하고 달리 경치 좋은 곳으로 통칭되는 '자하문 밖'이라고도 하는데 자하문(紫霞門)은 창의문의 다른 이름으로 '자하문 밖'이라 함은 지금의 세검정,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일대를 말합니다.

소나무 길을 잠시 벗어나면 좌우로 낭떠러지인 유명한 기차바위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잠시 다리섬하며 내려다보면 백악에서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漢陽都城)이 띠처럼 둘러쳐 있고 백악과 인왕산 사이의 안부(鞍部)에 창의문이 서 있습니다.

인왕산 정상에 오르면 조선의 법궁(法宮)인 경복궁(景福宮)과 내사산(內四山)인 백악(白岳), 낙산(駱山), 목덕산(木覓山), 인왕산을 둘러친 한양도성이 내려다보입니다.

한양은 내사산을 잇는 18.6km의 도성을 둘러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네 개의 큰문과 네 개의 작은 문을 내고 도성 중심에 종루(鐘樓)를 설치하였으며 도성 안의 명당수(明堂水) 물줄기인 청계천(淸溪川)이 도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홍인지문 옆에 오간수문(五間水門)을 설치하고 그 위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강역사 인왕산과 궁술터 황학정

불교성지 인왕산, 인왕은 사찰 수호신인 금강역사상

인왕산은 사림(士林)의 문화가 터를 잡기 이전부터 한양의 불교성지였는데, 인왕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한 인왕사(仁王寺)를 비롯해서, 선승들의 수도처인 금강굴(金剛窟), 세조 때 지은 복세암(福世菴), 궁중의 내불당(內佛堂) 등 도성의 내사산(內四山) 가운데 사찰이 가장 많이 있었으며 특히 인왕은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으로 사찰의 입구에 있는 수호신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인왕산은 한양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송배 혹은 바위정령을 믿는 우리나라 민속신앙의 성향으로 보아, 인왕산의 형세는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듯이, 높이 솟은 주봉의 암반은 당당한 위풍을 뽐내고, 그 주변과 계곡에 널려 있는 크고 작은 바위 형상들은 모두 개성이 뚜렷하며 그 모양새에 따라 선바위, 말바위, 매바위, 기차바위, 부처바위, 땃돌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등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바위(禪岩)는 ‘제사 지내는 터’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무학대사가 기도를 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 이은 조선의 건국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연유로 두 개의 큰 바위는 무학대사와 이성계, 또는 이성계 부부라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달리 두 바위 중 오른쪽 바위가 고깔을 쓴 장삼 차림의 승려를 닮았다고 하여 ‘선암(禪岩)’으로 전해져 오기도 하는데 이는 바위가 가부좌를 틀고 참선하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도성을 쌓을 때, 그 경계에 대하여 무학대사와 정도전(鄭道傳)의 주장이 대립되어 태조가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인왕산에 눈이 내렸는데 능선을 따라 한 쪽만 눈이 녹으면서 선이 그려졌으며, 이를 하늘의 계시로 여기고 그 선을 따라 성을 쌓았는데 공교롭게도 선바위가 그 경계선 밖으로 내쳐져 “선바위가 도성 안에 들어가도록 성을 쌓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무학대사의 뜻이 좌절되었으며 그때 무학대사는 통탄하며 조선시대에 불교가 쇠퇴하고 유학자들에 의해 억압이 지속되리라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정상에서 동쪽 아래로 넓게 펼쳐진 치마바위는 중종과 단경왕후의 애절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종(中宗)이 반정(反正)으로 왕위에 오르자 공신들이 단경왕후(端敬王后)가 연산군의 처남으로 좌의정까지 지낸 신수근(愼守勤)의 딸임을 문제 삼아 폐위시키고 궁궐

향학정과 궁술대회 모습(사진:다음카페-호미숙-자전거랑 사진여행)



에서 내쫓자 증중은 폐비(廢妃) 신씨(愼氏)가 보고 싶을 때면 누각에 올라 신씨의 집 쪽을 바라보곤 했는데, 신씨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집 뒤쪽에 있는 큰 바위에 자신이 궁중에서 입던 분홍색 치마를 눈에 띄게 걸쳐 놓았다고 하는데 증중은 그 치마를 보며 신씨를 향한 애절한 감정을 진정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기우제, 기청제 지내던 국사당과 궁술 연습장 황학정

선바위 아래에 있는 국사당(國師堂)은 1925년 남산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가 목멱산 기슭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지으면서 더 높은 곳에 국사당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전을 강요하자 건물을 해체하여 현재의 자리에 원형대로 복원한 것으로 이전장소를 인왕산 기슭 선바위 아래로 정한 것은 그곳이 태조와 무학대사가 기도하던 명당이기 때문이고, 국사당에는 태조와 왕비 강씨 부인상, 무학대사, 나옹화상, 최영장군, 명성황후상, 산신, 용왕신, 칠성신, 삼불제석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호국의 신으로 삼아 개인적인 제사는 금하고 국가의 공식행사로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를 지냈다고 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목멱신사(木覓神社)라는 사당이 남산 꼭대기에 있었고, 매년 봄, 가을에 초제(醺祭: 별을 향하여 지내는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엽에는 이미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었고, 다만 별궁(別宮)의 나인들이 치성을 드리러 오거나, 개성 덕물산(德物山)에 치성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 당을 거쳐 갔으며, 궁중 발기(撥記)에는 명산과 당, 묘 등에 치성을 위하여 보낸 금품목록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국사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며, 명성황후가 궁중 나인들을 시켜 국사당에 치성을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난 능선을 따라 내려서면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택견을 수련하고 시합까지 하였던 곳이 남아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까지 택견 시합이 열렸는데 우대와 아랫대 두 지역으로 편을 갈라 시합을 하였답니다.

우대라 함은 청계천 상류지역인 도성안의 서북쪽으로 경복궁에 가까워 하급관리(吏胥)인 중인들이 많이 살았고 아랫대는 청계천의 하류지역인 도성안의 동남쪽으로 혼련원이 있어서 하급장교(軍擧)인 중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사직단으로 내려서기 전에 만나는 황학정은 사정(射亭)으로 1898년(광무 2)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의 어명으로 경희궁 회상전(會祥殿) 북쪽에 지었던 것을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등과정 터인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에는 궁술 연습을 위한 사정(射亭)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필운동(弼雲洞)의 등과정(登科亭), 옥동(玉洞)의 등룡정(登龍亭), 삼청동(三清洞)의 운룡정(雲龍亭), 사직동(社稷洞)의 대송정(大松亭), 누상동(樓上洞)의 풍소정(風嘯亭)으로 그 위

치가 모두 인왕산과 북악 사이에 있는 서촌에 있어 서촌 오사정(西村五射亭)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사정은 조선 전기부터 무인의 궁술연습지로 유명했는데, 갑신정변 이후 활쏘기 무예가 쇠퇴하자 많은 활터가 사라졌고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활쏘기를 금지하여 황학정만 그 맥을 이어왔으며 지금 황학정이 세워져 있는 곳은 오사정의 하나인 등과정이 있던 자리입니다.

고대국가에서는 임금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해서 대대로 세습이 되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의 씨가 마르지 않게 대를 잘 잇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비옥한 토지와 튼실한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중심으로 임금의 조상 위패를 모시는 곳을(宗廟) 왼쪽에 두고 조상의 음덕으로 대를 잘 이을 수 있도록 기원했으며 오른쪽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 제사지내는 곳을(社稷壇) 두어(左廟右社) 임금이 친히 납시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필운대는 백사 이항복의 집터로서 원래는 장인인 도원수 권율 장군의 집이었으며 지금은 바위에 새겨진 글씨 세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성동 계곡과 기린교

인왕산 왕기 누르려 지은 세 궁궐-인경궁, 자수궁, 경덕궁

왼쪽에는 ‘필운대(弼雲臺)’라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집을 지을 때 감독관으로 보이는 동추(同樞) 박효관(朴孝寬) 외 9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백사 이항복의 후손인 월성(月城) 이유원(李裕元)이 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살던 옛집에 후손이 찾아왔더니, 푸른 바위에는 흰 구름이 깊이 잠겼고, 끼쳐진 풍속이 백년토록 전해오니, 옛 어른들의 의관이 지금껏 그 흔적을 남겼구나. (我祖舊居後裔尋, 蒼松石壁白雲深. 遺風不盡百年久, 父老衣冠古亦今)”

광해군(光海君)은 임진왜란 이후 파주 교하(交河)에 신궁(新宮)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때마침 풍수지리가인 성지(性智)와 시문용(施文用) 등이 인왕산왕기설(仁旺山王氣說)을 강력히 주장하자 인왕산의 왕기를 누르기 위하여 1616년(광해군 8)에 인왕산 기슭의 민가를 헐고 승군을 징발하여 인경궁(仁慶宮), 자수궁(慈壽宮), 경덕궁(慶德宮, 경희궁) 등 세 궁궐을 지었습니다.

인경궁은 사직동 부근에, 자수궁은 한양오학의 하나였던 북학(北學)의 자리에, 경덕궁은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定遠君, 元宗으로 追尊)의 사저에 지었으나 인조반정 뒤, 경덕궁만 남겨두고 인경궁과 자수궁을 폐지하였는데 인경궁은 1648년(인조 26)에 청인(淸人)들의 요구로 홍제원(弘濟院)에 역참(驛站)을 만들 때 청나라 사신들의 숙소 등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하여 인경궁과 태평관(太平館)의 건물을 허물어 재목과 기와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수궁은 자수원(慈壽院)이라 이름을 고친 뒤 이원(尼院 : 僧房)이 되었는데 후궁 중에서 아들이 없는 이는 이원에 들어와 있게 하였으므로 한때 5,000여 명의 여승이 살았으며 1661년(현종 2)에 여승의 폐해가 심하여 부제학 유계(兪槩)의 상계(上啓)로 폐지되면서 어린이들은 환속시키고 늙은이들은 성 밖으로 옮겼고, 1663년 자수원의 재목으로 성균관 서쪽에 비천당(丕闡堂)을 세우고, 또 일량재(一兩齋)와 벽입재(闢入齋)를 세웠습니다.

인왕산 아래 첫 계곡 수성동과 기린교

인왕산 아래의 첫 번째 계곡인 수성동은 종로구 옥인동과 누상동의 경계에 자리하며 조선시대에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라 하여 수성동(水聲洞)으로 불리게 되었고 수성동의 ‘동(洞)’은 달리 동천(洞天)이라 하는데 행정단위가 아니라 골짜기 또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인왕산의 물줄기는 크게 수성동과 옥류동으로 나뉘어 흘렀는데, 이 물줄기들이 기린교(麒麟橋)에서 합류하여 청계천으로 유입되었고 물줄기가 흐르는 하천 바닥은 대부분 기반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인해 암반의 표면은 매끈하며 부드럽습니다.

수성동은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여름철에 모여 탁죽과 휴양을 즐기던 계곡으로 겸재 정선이 그린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의 ‘수성동’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한 장소가 되었으며 장동은 지금의 종로구 효자동과 청운동 일대를 가리키는 옛 지명입니다.

수성동 계곡은 조선시대 역사지리서인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한경지략(漢京識略)> 등에서 ‘명승지’로 소개되었고, 당시의 풍경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통적 경승지’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계곡 아래에 걸쳐 있는 돌다리인 기린교는 한양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원위치에 원형대로 보존된 통 돌로 만든 제일 긴 다리라는 점에서 교량사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사진 위: 사직단 / 사진 아래: 수성동 계곡과 기린교



송석원 시사(松石園 詩社)는 천수경(千壽慶)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중인계층이 인왕산 아래 옥류동천(玉流洞天)의 송석원에서 1786년(정조 10)에 결성하여 1818년(순조 18)에 해산한 문학모임으로 달리 옥계시사(玉溪詩社)라고도 부르며 송석원은 천수경의 별장 이름입니다.

사대부문학이 중심을 이루던 조선사회에 서인(庶人)과 중인(中人)을 중심으로 하는 위향문학(委巷文學, 閭巷文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숙종 때로 신분이나 경제력에서 사대부에 비하여 열등한 위치에 있던 위향인들이 자기 권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문학모임인 시사였고, 대표적 그룹이 송석원 시사였습니다.

송석원 시사와 육성공

서얼과 중인의 문학모임 송석원 시사와 네 명의 검서관

-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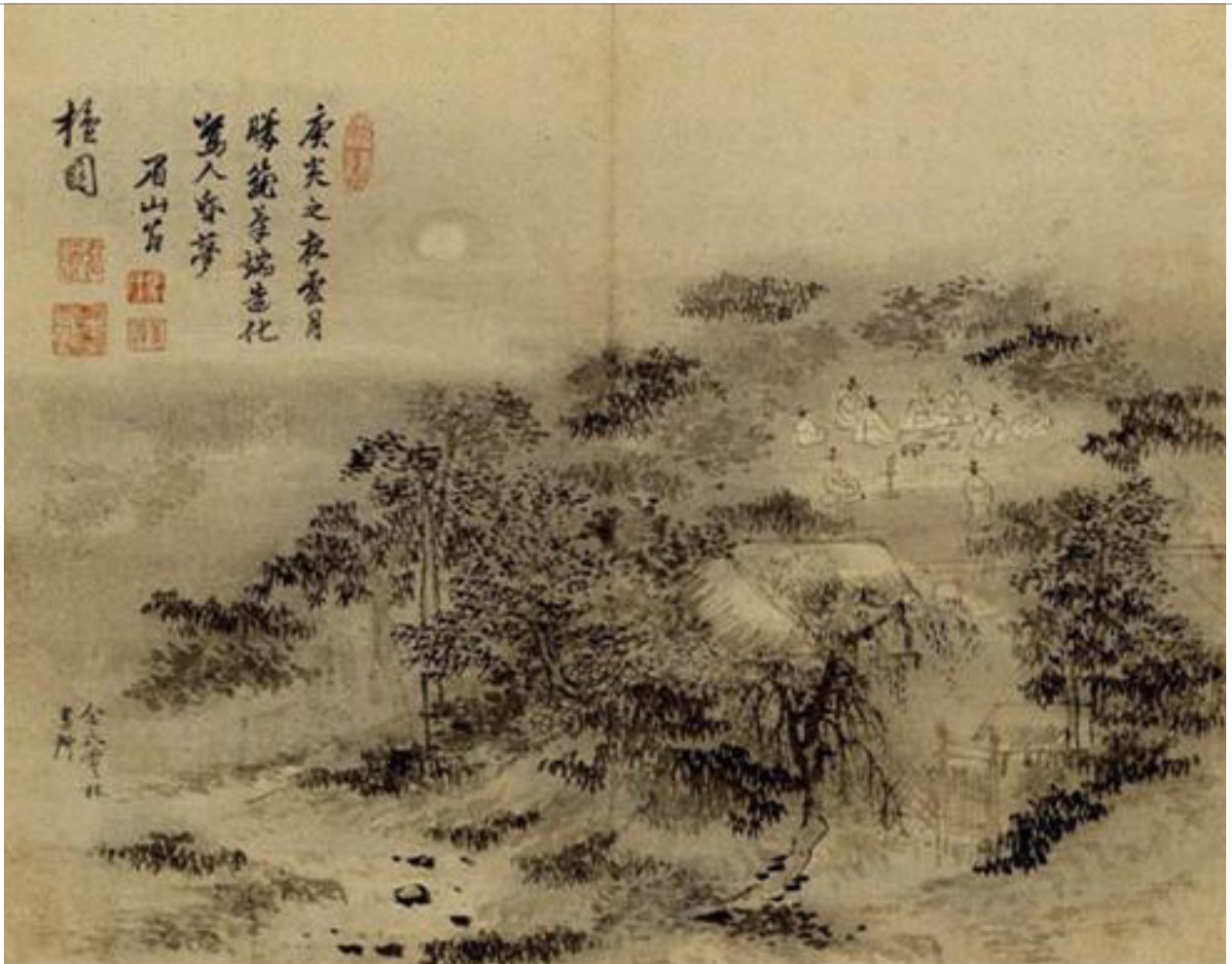
그 주요인물은 맹주인 천수경을 비롯하여 장혼(張混), 김낙서(金洛書), 왕태(王太), 조수삼(趙秀三), 차좌일(車左一), 박윤묵(朴允默), 최북(崔北) 등으로 이들은 김정희(金正喜)가 쓴 송석원(松石園)이라는 편액(扁額)을 걸고 그들과 같은 처지의 시인들과 어울려 시와 술로 소요자적(逍遙自適)하였는데, 후일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도 여기에 나와 큰 뜻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활동 중 백전(白戰)은 전국적 규모의 시회로서 1년에 두 차례씩 개최되었는데, 남북 두 패로 나누어 서로 다른 운자(韻字)를 사용함으로써 공정을 기하였던 큰 모임이었고 1797년에 <풍요속선(風謠續選)>을 간행하여 <소대풍요(昭代風謠)>이후 60년 만에 위향인들이 그들의 시선집(詩選集)을 간행하는 전통을 수립하였으며 구성원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송석원시사와 위향문학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체제와 제도를 명문화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문무관 2품 이상인 관원의 양첩 자손은 정3품까지의 관직에 허용한다.”라고 하였으며 “7품 이하의 관원과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 자손은 정5품까지의 관직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첩(良妾) 자손은 그나마 한정된 벼슬이라도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천첩(賤妾) 자손은 벼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뛰어난 서얼 지식인들이 늘어나자, 정조는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에 해당되지 않도록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잡직(雜職) 관원을 뽑았는데 규장각(奎章閣)에서 서적을 검토하고 필사하는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정무직이 아니라서 기득권층의 반대로 없었고,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서얼 학자들의 불만을 달래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1779년에 임명된 초대 검서관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로 당대에 가장 명



송석원시사야연도, 김홍도, 1791

망 있는 서얼 출신의 이 네 학자를 4검서(四檢書)라고 불렀는데 특히 유득공은 조선의 문물과 민속을 기록한 <경도잡지(京都雜志)>를 지었으며, 대를 이어 검서로 활동했던 그의 아들 유본에는 서울의 문화와 역사, 지리를 설명한 <한경지략(漢京識略)>을 지었습니다.

왕실의 사묘(私廟-왕을 낳은 후궁의 신위) 육상궁

이완용(李完用)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태화관 터, 명동성당 부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1913년 이후부터 죽기 전까지 살았던 곳은 '옥인동 19번지' 일대로서 약 3700 여 평의 꽤 넓은 땅을 소유하였으며, 해방이 되자 다른 대부분의 친일파들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은 적산으로 몰수하여 일부는 민간인에게 불하되고 많은 부분이 국유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파출소, 종로구 보건소, 한전출장소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과 함께 악명 높았던 '옥인동 대공분실'이 그 국유지에 줄지어 들어서 있고 다행히 이완용이 살았던 집도 유럽풍의 양식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희궁(宣禧宮)은 영조의 후궁이며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신주를 봉안한 묘사(廟祠)로 1764년(영조 40)에 건립되었으며 원래 영빈 이씨의 시호(諡號)를 따서 의

열묘(義烈廟)라 하였다가, 1788년(정조 12)에 선희궁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1870년(고종 7)에 위패를 육상궁(毓祥宮)으로 옮겼다가, 1896년 선희궁으로 되돌렸는데 그렇게 하게 된 연유는 영친왕이 태중(胎中)에 있을 때 순헌 엄귀비(淳獻嚴貴妃)의 꿈에 영빈이씨가 나타나서 폐(廢)한 사당을 다시 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기에 엄귀비가 영친왕을 낳고 나서 꿈 이야기를 고종에게 고하여 본래 자리에 사당을 새로 지어서 다시 신주를 받들었다고 하나, 1908년에 신주를 다시 육상궁으로 옮겨 받들었다고 합니다.

육상궁은 왕실의 사묘(私廟)로서 달리 칠궁(七宮)이라고도 부르는데, 왕실의 사묘란 조선시대 정실왕비(正室王妃)가 아닌 후궁에게서 태어난 임금이 그의 어머니의 신위(神位)를 모신 곳으로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의 생모인 일곱 후궁의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육상궁은 원래 1725년(영조 1) 영조가 생모이자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신위를 모시고 숙빈묘(淑嬪廟)라 하다가 뒤에 육상묘(毓祥廟)로 바꾸었으며, 1753년 육상궁(毓祥宮)으로 개칭되었고 1908년 추존된 왕 진종(眞宗)의 생모 정빈 이씨(靖嬪李氏)의 연우궁(延祐宮),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綏嬪朴氏)의 경우궁(景祐宮),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暎嬪李氏)의 선희궁(宣禧宮),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대빈궁(大嬪宮), 추존된 왕 원종(元宗)의 생모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저경궁(儲慶宮) 등 5개의 묘당을 이곳으로 옮겨 육궁이라 하다가 1929년 영친왕의 생모 순헌귀비 엄씨(純獻貴妃嚴氏)의 덕안궁(德安宮)도 옮겨와서 칠궁이라 하였습니다.

창의궁(彰義宮)은 영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잠저(潛邸)로서 이곳은 원래 효종의 4녀인 숙휘공주(淑徽公主)의 부마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이 살던 집이었으나 숙종이 이를 구입하여 훗날 임금이 오르는 연잉군(延仍君)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영조의 세자인 효장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딸인 화순옹주(和順翁主)가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인 김한신(金漢薰)과 결혼하자 이들을 위해 창의궁 옆에 집을 지어 주었는데 부마 월성위(月城尉) 김한신의 집이라고 ‘월성위궁’이라 하였습니다. *



최연(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젊은 시절 불교사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다가, 혹여 변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잠시 기웃거리다가 나와서, 인문학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옛 동지들이 신대승의 기치를 내걸어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운동체인 ‘민주주의 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생존을 위해 사단법인 ‘해아라’이사장,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고을학교 교장

한국 대승불교의 위기를 말한다

이제열 법림선원장

불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터이지만, 현재의 한국불교 상황은 가히 위기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불교 안팎의 갖가지 문제들은 해결점도 찾기 어렵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안으로는 범계승들과 악견 비구들이 사자신충처럼 퍼져 깊은 병에 들어 있고, 밖으로는 외도들이 파죽지세처럼 몰려들어 걸음조차 걷기 힘들게 되었다.

초기불교 우월론에 대한 우려 커

그런데 한국불교의 이와 같은 내외외환 속에서도 설상가상으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한국불교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대승의 가르침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가 아닌 동일한 부처님을 교조로 모시는 불교 안에서 대승의 가르침은 심한 상처를 받고 있다.

그 세력이란 다름 아닌 초기불교 우월론자들이다. 이들은 초기불교만이 부처님의 진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승의 가르침을 공존할 수 없는 외도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초기불교 우월론자는 대승의 가르침을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가 하면 박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들의 대승에 대한 공격은 초기불교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불교 언론매체들을 검색해도 금세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터넷 불교 언론매체의 교리 해설은 거의 초기불교 우월론자들이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승의 교리를 비불설로 기술하고 불자들로 하여금 대승에 대한 신심에 금이 가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편승하여 험악한 댓글들이 여과장치 없이 횡행하는 모습은 미래의 한국불교를 더욱 염려스럽게 한다. “대승뿔교” “대승박멸” “대승퇴치” “잡불교” “짜통불교” 등 갖가지 대승의 교리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은 일반 불자들 중에는 신행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혼란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마 이대로 두었다가는 머지않아

불교도 기독교의 구교와 신교처럼 갈라져 서로 투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거라는 우려마저 든다. 실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감정 섞인 언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불교에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거해 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1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는 대승의 가르침 속에서 흘러왔다. 교학은 물론, 의식과 수행 그리고 수행 등 모든 것이 대승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불자들의 사고 또한 이 테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이런 한국불교에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전한 스님이 바로 거해스님이다.



이미지 출처: [홍익학당]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결별하라!_A214에서 캡처(youtube 강의 동영상)

초기불교 확산에 기여한 거해스님에 대한 성찰

거해스님이 국내에서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 무렵이다. 당시 대승불교 일색이었던 한국불교에 거해스님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스님은 팔리어 예불문과 발원문, 경구를 암송했고 초기불교에 입각한 조리 있는 법문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초기불교에서 행해지는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섬세한 가르침은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불교수행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이런 거해스님의 활동은 국내에서 초기불교의 교리들이 빠르게 이해되는 데 큰 힘이 됐다.

거해스님의 활동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거해스님처럼 초기불교를 가르치는 상좌부 불교국가로 건너가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이들이 다시 국내에 들어오면서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대거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상좌부 불교국가로 건너가 출가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해스님처럼 초기불교를 공부한 뒤, 가르침과 수행법을 국내로 들여와 펼친 인물은 드물었다. 거해스님의 활동은 수행과 포교에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학계와 출판계 나아가 수행단체들에게까지 파급돼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한국불교의 학문적, 실천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거해스님의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활동이 한국불교에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간과할 수 없는 역기능은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에 이념적 대립을 가져오게 했다는 점이다. 이 때에 거해스님을 비롯해 상좌부 불교국가에서 초기불교를 수학하고 온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대승불교의 교리를 비불설로 규정하고 신봉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거해스님은 법회 때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등의 경전독송을 금지시키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같은 불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가르쳤다. 스님은 대승논사인 용수, 세친, 마명과 같은 보살들을 힌두교로부터 불교를 왜해시키기 위해 들어온 외도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불성과 법신, 여래장 등은 모두 불설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은 간화선을 비롯해 대승불교의 여러 수행법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대승



불교의 수행법이나 수행의 결과는 부처님이 직접 실천하고 얻은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과는 무관하다고 가르쳤다. 오늘날 초기불교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이미 거해스님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거해스님의 활동은 대승 교리 일변도의 한국불교에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확산 시키는데 순기능적 영향을 가져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승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립적 관계를 맺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 조화와 관용으로 초기불교를 정착시켰어야 옳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를 신봉하고 이를 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불교관은 거해스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대승의 관점에서 초기불교를 진단하여 그 한계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어느 종교학자는 ‘종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종교사를 연구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말은 종교의 교리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한다는 의미이며, 한 시대의 교리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기불교가 단지 부처님의 원음과 가깝다고 하여 대승을 몰아부치는 태도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독단에 불과하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대승의 교리로 발전한 데에는 그만한 원인과 과정이 있고 초기불교를 뛰어넘는 위대한 이념들을 불교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대승에 대하여 비방과 공격을 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한국 속의 대승불교에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해왔다. 대학에서는 대승불교 보다는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압도적이며, 출판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수행과 명상법 또한 초기불교에 입각한 방법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실정에 맞춰 앞으로 초기불교가 한국에 확산된다면 대승의 교리는 발불일 곳을 잃는다.

대승의 경전들은 모두 폐기처분될 것이고 사찰의 형태도 변할 것이며, 불교의 모든 의례의식과 문화도 완전히 변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승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단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승의 관점에서 초기불교를 진단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왜 대승불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초기불교의 확산을 방치 한다면 대승불교는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



이제열(법림선원장)